

濟州道 觀光從事員의 職業觀에 대한 調查研究

이를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提出者 吳 英 淑

指導教授 金 恒 元


1984年 月 日

吳英淑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主審 고성근 

副審 이만성 

副審 김항원 

1984年 月 日

目 次

I. 序 論	1
1. 研究目的	1
2. 研究範圍	2
II. 理論的 接近	4
1. 職業倫理의 特徵	4
2. 觀光從事の 바람직한 職業觀	12
III. 研究方法	18
1. 測定導具	18
2. 標集	18
3. 資料處理	19
IV. 結果 및 論議	20
1. 經濟的 側面	20
2. 社會的 側面	28
3. 個人的 側面	46
V. 結 論 : 要約 및 提言	51
○ 參考文獻	53
○ 附 錄	55
○ 英文抄錄	59

表 目 次

〈표 1〉 측정도구의 문항구성표	36
〈표 2〉 질문지 회수현황	37
〈표 3〉 원하는 報酬形態	41
〈표 4〉 現報酬에 대한 滿足度	43
〈표 5〉 현재의 보수와 생계유지	45
〈표 6〉 轉職經驗	46
〈표 7〉 精神的 報酬에 대한 認知度	48
〈표 8〉 사회적 인식	51
〈표 9〉 離職經驗	54
〈표 10〉 責任感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	55
〈표 11〉 觀光從事員으로서의 책임의식	57
〈표 12〉 책임감에 대한 態度面	59
〈표 13〉 사회공헌에 대한 意識 및 選職動機	61
〈표 14〉 사회성원으로서의 役割遂行意識	64
〈표 15〉 사회적 역할분담의식에 대한 態度側面	66
〈표 16〉 국토에 대한 自負心	69
〈표 17〉 문화와 전통에 대한 矜持	71
〈표 18〉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74
〈표 19〉 자부심에 대한 態度面	76
〈표 20〉 무궁화에 대한 意識	78
〈표 21〉 애국가에 대한 意識	80
〈표 22〉 태극기에 대한 마음가짐	82
〈표 23〉 직업선택의 조건	85
〈표 24〉 現職業에서의 自我實現 滿足度	87
〈표 25〉 觀光從事員으로서의 矜持	89
〈표 26〉 矜持에 대한 의식	91

I. 序 論

1. 研究目的

우리는 일반적으로 現代社會를 產業社會 혹은 機械文明社會 등으로 일컫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현대사회는 經濟的 生活水準의 향상은 물론, 다른 여러 분야에 있어서도 매우 급격한 社會構造的 變化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年代 이후 政府의 高度經濟成長政策에 힘입어 여러 企業의 등장을 보게 되었고 또한 기업체들의 업무내용도 多樣化 現象을 보였다. 특히 최근 20여년 동안에는 農業從事者가 대폭 감소된 반면에 노동자와 사무직 및 서비스직 종사자가 증가추세를 보였다.¹⁾ 이러한 사실은 產業化 社會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라고 하겠다.²⁾ 그러나 문제는 職業의 變化에 따른 個個人의 價値觀에 混亂이 若起됨으로써 여러가지 不作用과 逆機能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의미있는 時間의 대부분을 자기 職業과 관련되는 활동 속에서 소비해야만 하는 현대인의 生活樣式에 비추어 볼 때, 건전한 倫理意識이 바탕이 된 職業觀의 定立은 필요불가결한 先決問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대부분의 產業分野와 마찬가지로, 觀光產業分野도 역시 1960년대 이후 국가의 經濟開發計劃과 더불어 戰略產業化 되었다. 1970年代에 와서는 경제적 여건의 향상과 勞動時間의 단축으로 인한 餘暇의 增大現象이 觀光의 大衆化 傾向으로 나타났다. 특히 濟州道의 경우, 독특한 生活風習과 自然景觀, 氣候條件 등 풍부한 觀光資源에 대한 魅力과 觀光施設 등의 제반 여건향상으로 말미암아 觀光開發에 있어서 많은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濟州道가 보다 훌륭한

1) 金泳謨, 李孝善, 崔京錫, 元奭朝 共著, 「現代社會學」, 한국복지정책 연구소 출판부, 1983, p.207. 참조.

2) 김동일, “한국인의 意識構造와 價値觀,” 경향신문사, 「향후 10년의 국가발전전략-경향신문사 창간 37주년 기념 심포지움」, 1984, p.466. 참조.

觀光地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問題點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觀光産業의 第一線에서 활약하고 있는 觀光從事員들의 잦은 離職, 서비스 改善 등의 문제점들이 종종 지적되어 왔다. 그 이유는 觀光從事員들에게 확고한 職業觀이 결여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차후 効率的인 濟州道 觀光開發을 위해서는 觀光종사원들의 職業倫理에 대한 意識構造에 대하여 관심의 초점을 맞추어 보는 일도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觀光産業의 중요성은 물론, 觀光事業을 이끌어 나가는 종사원들의 역할의 중요성도 이미 부각되어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한 研究(濟州道の 경우 포함)는 아직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촉구된다.

本 研究는 濟州道 觀光從事員들의 자기 직업에 대한 倫理意識을 調査하고, 그들이 지녀야 할 올바른 職業倫理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濟州道 觀光開發을 보다 효율적인 方向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基礎資料를 提供하려는 데 그 目的이 있다.

2. 研究範圍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올바른 職業觀의 확립과 職業倫理에 대한 意識啓發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정작 실제로 이를 전문적으로 다룬 서적을 찾아 보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³⁾이다. 본 연구는 충분한 參考資料를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지니고 출발했다.

本 研究는 觀光事業法 第 30 條에 적용되는 觀光從事員(交通部長官이 실시하는 資格試驗에 合格한 者로서 資格證을 교부받은 者)⁴⁾들을 대상으로 調査하였다. 특히 濟州道內 호텔 중에 特級호텔인 4개의 호텔과 濟州道內에 本店을 갖고 있는 4개

3) 秦教勳, "職業倫理 一般의 方向에 관한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哲學思想의 諸問題」, 1983, p.280;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는 專門的인 직업의 윤리의식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를 한 자료가 발표되고 있지 않다.

4) 李允求, 「觀光法規 特講」, 종각출판사, 1979, p.72.

의 旅行社從事員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本 研究內容을 一般化하는 데는 불충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⁵⁾

本稿에서 研究對象으로 정한 4개의 여행사는 모두 國內旅行斡旋만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觀光종사원(國內旅行案内員, 通譯案内員, 호텔從事員)중 통역안내원은 여기서 제외되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企業倫理와 職業倫理는 상호의존 내지 보완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勞·使의 두 측면이 모두 고찰돼야 하겠다. 그러나 本 研究에서는 두측면을 다루기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종사원들의 倫理意識에 대한 조사연구 측면에 국한하여 그들의 職業觀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기로 한다.

5) 앞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했던 호텔, 여관, 식당, 여행사, 토산품판매점 등 여러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하리라 본다.

II. 理論的 接近

1. 職業倫理의 特徵

1) 職業의 의미

건전한 社會의 지속적인 發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알맞는 職業觀과 훌륭한 勤勞精神이 요청된다. 특히, 현대는 職業倫理의 確立과 職業倫理에 대한 意識啓發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직업이 갖는 本質的 意味부터 타진해 보는 순서를 택하여 직업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기로 한다.⁶⁾

(1) 經濟的 의미

職業이란 生計維持를 위하여 報酬를 얻는 것을 目的으로하는 지속적인 人間活動으로서 勞動의 代價인 物質的 報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도 존경, 위신같은 精神的 報償을 의미한다.⁷⁾ “만일 돈만이 勞動의 목적이라고 할 때, 그 수입에 대해서는 滿足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노동 그 자체에 宗教的, 倫理的 高等價値를 부여할 수 없다면 그것 자체는 고통스러운 것이다.”⁸⁾ 그러므로 生計維持手段

6) 인간은 직업을 통해 모순된 듯 하면서도 상호보완적인 직업의 세 가지 의미(경제적의미, 사회적의미, 개인적의미)를 동시에 성취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세 분야로 구분하여 직업의 의미를 고찰하며, 제 3장의 結果 및 論議에서도 3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7) 직업에 대한 정의는 다음의 논문들에서 대동소이하게 다뤄지고 있다.

韓端錫, “公職者의 職業倫理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現代社會와 倫理」, 1982, p.287. 참조.

문화공보부, 「직업윤리」, 1983, p.22. 참조.

金彩潤,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職業觀念에 대한 假說的 探索,”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논문집」 제 18 집, 1971, p.165. 참조.

‘직업’에 대한 어원적 고찰과 일상적 용법에 대해서는 秦教勳, 前掲書, pp.286 ~ 287에서 상세히 다뤄지고 있다. p.4. 참조. 13 ~ 14.

8) 秦教勳, 前掲書, p.281.

으로서의 직업은 오늘날에 와서는 직업을 갖는 目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직업이 우리에게 주는 社會的 의미, 個人的 의미, 그리고 그 이외의 여러가지 측면에서도 우리는 직업의 의미를 추가하여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社會的 의미

職業은 우리 人間들이 형성한 사회에 무엇인가를 寄與하기 위한 活動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직업을 가짐으로서 일정한 社會 속에 참여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일정한 社會的 役割을 함으로써 社會에 기여하고 공헌하게 된다. 이때 비로소 인간은 원만한 社會生活을 할 수 있으며 社會의 지속적인 發展 역시 각기 자기의 社會的 分擔을 다함으로써 실현된다. 즉, 職業이란 “일정한 社會的 分擔, 혹은 社會的 役割의 지속적인 遂行”이라고 할 수 있다.⁹⁾

(3) 個人的 의미

인간은 직업을 통해서 자기를 實現시키고 個性을 발휘하며 일정한 社會的 地位와 社會的 價値를 인정받는다. 노동의 보람은 報酬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適性和 能力에 알맞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職業에 從事함으로써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職業은 社會成員으로서의 成人이 각자의 資質과 能力을 발휘하여(個人的 側面) 社會的 役割을 遂行하고(社會的 側面) 거기에서 나오는 報酬로서 生計를 維持하는 (經濟的 側面) 지속적인 活動”¹⁰⁾인 것으로 귀결된다.

이상의 職業概念 중에서 개인이 의도하는 成就目的의 비중을 어디에 더 많이 두느냐에 따라 報酬指向的, 寄與指向的, 自我發現指向的 職業觀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이 세가지 職業觀은 각각 대조적이고 모순된 듯 하지만 사실은 서로 긴밀한 相關關係를 갖는다. 이를테면, 많은 報酬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奉仕를 해야하고

9) 임종철, “勤勞階層의 倫理意識과 勞使關係,”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 「産業社會의 職業倫理」, 1981, p.370.

10) 문화공보부, 前揭書, p.18.

많은 奉仕와 寄與를 위해서는 각자의 個性에 알맞는 職業을 가져야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¹⁾ 그러므로 職業이란 개인의 인격전체에 의해서 이뤄지는 생활의 구현이기 때문에 目前的 經濟的 利得에 앞서 개인의 自己成長과 社會的 寄與란 관점에서 그 意義를 찾아야 할 것이다.

2) 職業觀의 變遷

職業이나 職業活動의 실질적 내용인 일(work)에 대한 관념은 歷史的 배경, 또는 당사자들의 現職, 教育程度, 나이, 현직에 대한 滿足度 등에 따라 달라지리라 여겨진다.¹²⁾ 60年代 경제발전 初期의 職業倫理가 80年代에도 그대로 타당성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러면, 여기서 西歐社會에서의 職業觀의 變遷過程과 아울러 우리 傳統社會의 職業觀을 고찰하고자 한다.

古代의 희랍인, 로마인, 희브리인들은 일을 奴隸만이 해야하는 고통스럽고 슬픈 것으로만 보았다.¹³⁾ 따라서 職業이 勞動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報償을 받는다는데 의의가 있다면 이 時代의 일에 대한 관념은 단순한 노동 이상의 의미는 없었던 것 같다.

中世의 역사는 기독교가 지배했던 시대인 만큼 초기 기독교에서의 일은 인간이 범한 原罪에 대해 神이 가하는 형벌이라고 생각했다.¹⁴⁾ 그 이후 직업과 일의 現代的 意味를 정립한 精神革命이었다고 할 수 있는 宗教革命은 직업과 일을 人間生活의 基礎이며 關件이라고 생각하게 했다. 또한 이 시대에는 資本主義精神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켈빈(Calvin)의 禁欲的 職業倫理가 지배적이었으며 職業平等思想과 天職概念이 정립되었다.¹⁵⁾ 또한 보다 많은 報酬를 얻을 수 있는 職業을 추구하는

11) 한병길, “農村地域 學生의 職業觀에 대한 研究(全北地域 中心),”(조선대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p.11. 참조.

12) 金彩潤, 前掲書, p.162. 참조.

13) 上掲書, p.162. 참조.

14) 上掲書, p.163. 참조.

15) 李榮基, “經濟學的 觀點에서 본 國民倫理學,” 국민윤리학회, 국민윤리연구(New-sletter, 6호), 1980, pp.13 ~ 14. 참조.

哲學教材研究會編, 哲學概論, 學文社, 1981, pp.94 ~ 95. 참조.

것이 직업인의 義務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직업의 經濟的 意味가 강조됐던 시기라 할 수 있다.

19 세기에는 당시의 思想家나 哲學家들이 職業勞動을 모든 社會發展의 根源으로 보고 人間의 基本的 義務로 여겼다¹⁶⁾는 점에서 이 시기에는 직업이 갖는 社會的 意味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宗教改革 이래 직업의 존엄성을 잃지 않았던 西歐에서도 後期產業社會에 들어와서는 직업을 통한 社會에의 寄與보다는 報酬의 獲得을 앞세우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러한 퇴폐적 職業觀의 고조는 곧 現代文明의 危機로¹⁷⁾ 여겨지고 있다.

한편, 韓國傳統社會의 경우, 오랫동안 지속된 中央集權的 官僚社會로 말미암아 엄격한 身分制度和 階層意識, 地位指向의 경향이 매우 강했다. 科擧制의 실시로 인한 勤勞精神 무시 풍조와 직업의 貴賤意識, 儒敎의 영향으로 인한 士農工商의 職業差別意識 등으로 올바른 職業倫理가 형성되기 어려웠다. 또한 物質을 지나치게 輕視하고 勞動에 대한 代價나 報償에 대한 無視, 輕視는 職業倫理發達의 障礙요인이었다.¹⁸⁾

직업을 協同이 아닌 競爭의 手段으로 보는 경향, 직업을 통한 社會的 寄與보다도 報酬를 중시하는 價値觀, 또는 직업 곧 營利라는 사고, 각종 직업에 대한 差別意識 등은 바람직한 職業觀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企業間에 숙련공을 유인해 간다든가, 아주 작은 利益때문에 쉽게 職場을 옮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은 참으로 職業倫理의 不在를 지적한 內容이라고 하겠다.

16) 金彩潤, 前掲書, p.164. 참조.

17) 한병길, 前掲書, p.12. 참조.

18) 秦教勳, 前掲書, p.291. 참조.; 여기에서 우리는 직업에 대한 차별의식이나 혹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무시하는 풍조들은 직업이 주는 個人的意味를 무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全海宗, “韓國傳統社會의 職業倫理,”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産業社會의 職業倫理」, 1981, pp.48 ~ 50. 참조.

3) 職業倫理의 一般的 性格

倫理(ethic)는 어떤 全体社會에 있어서 공인된 行動規準이며 그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그의 遵守를 요구하는 社會的 規範¹⁹⁾을 의미한다.²⁰⁾ 이런 原理속에서 인간생활의 여러 장면, 또는 여러가지 人間關係에 적용했을 때 생기는 구체적 行動規準에 따라 다른 명칭이 붙여 지는 것이다. 즉,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家庭에 적용했을 때는 家庭倫理, 國家와 國民의 關係에 초점을 두고 생각할 때는 國民倫理가 된다. 그러므로 職業倫理라고 해서 一般倫理와 별개임을 뜻하지는 않는다. “職業倫理를 성립시키고 있는 根本原理는 어떤 특수한 職能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것을 實行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그 職能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없는 德性”²¹⁾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職業倫理는 職業의 本性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 직업에서 특히 중시되는 德(virtue)이므로 비슷한 行爲같아도 職域과 職能에 따라서 倫理的 評價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A의 직업에서 德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이 B라는 직업에서는 不德이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相互背他的인 것은 아니다. 각각의 職業이 어느 德目을 더 重視하느냐에 따라 職業倫理의 特殊性이 形成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職業倫理와 一般倫理는 그 本質은 같지만 직업을 통해 실행하게 되는 實踐倫理는 다를 수 있다.

이상의 內容에서 볼 때, 특정한 職業倫理를 一般化(generalization)하는데는 問題點이 있겠지만 職業人으로서 항상 業두에 두어야 할 다음과 같은 基本德目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²²⁾

19) 韓端錫, 前揭書, p.285. 참조.

20) 어원적으로 보더라도 ethos, mores 등의 의미는 사회적인 풍속, 습관 등에서 나온 것이므로 우리가 本稿에서 사용하는 ethic (윤리)라는 말과 잘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1) 秦教勳, 前揭書, p.288.

22) 직업이 갖는 세가지 의미가 각각 독립적이라기 보다는 상호연관성을 가지므로 본장에서 세가지 측면(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측면)으로 구분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으나 덕목내용이 어느 측면에 더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세가지 측면으로 분류하여 고찰했다.

(1) 經濟的 側面

① 正當한 報酬指向性

오늘날 가장 두드러진 職業觀으로는 직업을 통한 代價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報酬指向의 職業觀을 지적할 수 있다.

직업인은 자기 직업에 대한 經濟的 側面을 부정할 수도 없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직업이 지니는 經濟的 意味는 物質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의도하는 대부분의 行爲가 價値(value)를 추구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전제를 두고 있다는 측면을 외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다. 따라서 직업을 통한 國家, 社會에의 寄與를 고려하지 않고 과다한 報酬를 추구하는 것, 또는 직업을 營利手段으로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직업활동의 反對給付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외면하는 것은 모두 직업의 理想的인 모습이나 올바른 職業觀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報酬는 寄與에 비례하는 보수여야 한다.

② 合理的 精神

최근들어 급속한 産業化의 영향으로 過程보다는 結果를 중시하는 사고방식, 目的 達成을 위해서는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는 자세, 자신의 편익에 따라 순간의 사소한 利益때문에 쉽게 직장을 옮기는 행위 등 非合理的 사고방식이 만연해졌다.²³⁾ 따라서 직업인은 오늘날의 직업이 점차 分業化, 專門化됨에 따라 고도의 專門性을 요구하므로 일시적 이익을 위한 잦은 離職이나 轉職을 하는 行爲는 자신은 물론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자세를 지니는 合理的 態度를 가져야 할 것이다.²⁴⁾

23) 개인은 자기의 이익추구를 위한 이기적 행동을 하는 것이 合理的(rational)일 수 있으나, 가까운 이익 보다는 앞을 멀리 내다보는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익보다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가까운 이익추구 보다는 앞을 내다본 결단은 더 合理的일 수 있겠다.

24) 여기서의 '合理的 態度'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개인적 측면이나 그 이익에 報酬指向性을 전혀 무시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利益보다는 사회 전체적인 利益, 즉 公利를 고려한 태도를 의미한다.

(2) 社會的 側面

① 連帶精神

連帶(solidarity)란 全體를 구성하는 個個要素의 相互依存이다. 이 상호의존에 의하여 하나의 요소에 발생하는 모든 것은 他의 要素에 영향을 미친다.²⁵⁾ 그러므로 集團的인 기업이 잘되어 모든 사람에게 滿足이 가도록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와 함께 일하는 동료와 보내는 시간을 쾌적하게 하는데 서로 마음을 써야한다.

인간은 본래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게 되어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도록 되어 있다. 특히 職業活動은 동료와 후배들에게 끝없는 波及力을 갖고 있으므로 누구에게든지 害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되며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면 기꺼이 도와 주어야 할 義務가 있다.²⁶⁾ 이로인한 한 集團의 원활한 운영은 곧 調和로운 社會發展의 原動力이 될 것이다.

② 責任感

성숙한 社會에서의 個人은 각자의 機能과 役割을 통하여 전체사회의 統合的 運營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役割을 제대로 遂行하지 못한다면 현대사회의 社會成員으로서 職業人 구실을 다할 수 없다. 현대사회는 有機的 社會인 만큼 자신의 責任을 원수하지 못하면 사회전체에 크고 작은 影響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責任意識이야말로 國家와 社會, 그리고 職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다.

③ 奉仕精神

奉仕(service)란 남을 위하여 일하는 것, 남을 받들어 섬기는 것, 國家나 社會

25) 金恒元, “職場倫理”, 농민교육원, 「관광종사원 연수교재」, 1982. p.119. 참조.

26) 秦教勳, 前掲書, p.302. 참조.

에 대해 貢獻하는 것 등으로 풀이되며, 단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이외의 사람에게 이바지하는 것이다. 즉 “代價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간에 他人의 利益을 증진시키고 타인을 助力하기 위한 物的, 精神的, 便利提供”을 말한다.²⁷⁾

그 나라의 번영과 위대함을 만드는 것은 개개인이 그 責任을 담당하고 있다는 奉仕精神을 갖는 것이다. 국가민족의 성숙한 發展을 위한 많은 組織이 원활하게 자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奉仕에의 배려와 욕구가 뿌리박힌 倫理意識이 필요하다.²⁸⁾

(3) 個人的 側面

① 職業的 良心

「저 사람은 양심적이다」라는 말은 직업노동자, 교사, 전기기사, 변호사 등 어떤 職種을 막론하고 일하는 사람에 대해 말하는 최대의 찬사다.²⁹⁾ 양심적인 사람은 信賴를 갖도록 만든다. 단골을 얻기 위해서는 우수하기는 하나 目的에 이르는 手段에 있어서는 그다지 良心的(conscious)이 아닌 경쟁자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한번 사귄 손님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고객을 많이 확보한 기업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職業的 良心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그의 조력을 바라는 사람들의 權利와 利益에 專心하며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시키게 된다. 양심적인 商人은 손님을 滿足시킬 수 있는 良質의 商品을 提供하며 결코 최대의 利益만을 얻을 수 있는 商品을 파는 일을 하지 않는다. “職業的 良心은 責任感을 전제로 하며 그것의 本質은 約束에 대한 忠實性이라 할 수 있다.”³⁰⁾

1) 金容元, “第3次産業으로서의 서비스産業,” 「경기대학 논문집」, 제 5 집, 1977, pp.94 ~ 95.

28) P. 프루키에 著, 金哲殊譯, 「公民의 倫理(下)」, 삼성미술문화재단, 1980, p.214. 참조.

29) 上揭書(上), p.214. 참조.

30) 上揭書, pp.214 ~ 217.

② 自負心과 矜持

사회는 구성원들간의 連帶体系로서 직업간에 相互補完的인 관계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職域이라도 그것이 결여된다면 전체사회는 不調和를 초래하게 되므로 어느 직업이 '좋다' 혹은 '나쁘다'라는 評價의 客觀的 基準을 세우기는 어렵다. 즉, 아무리 하잘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직업이라도 나름대로의 社會的 役割을 지닌다. 따라서 개개인은 직업에 대한 召命意識 곧 職意識을 갖고 자신의 역할에 대한 제나름의 自負心과 矜持를 가져야 함은 어느 직업을 막론하고 가져야 할 倫理意識이라 본다.

2. 觀光從事員의 바람직한 職業觀

1) 觀光從事員의 役割

各國의 經濟發展에 따른 可處分所得의 增大와 인간의 社會的 地位向上에 따른 餘暇時間의 增大, 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기려는 價値觀의 정착, 工業化, 都市化의 급속한 진전으로인한 生活環境의 惡化 등은 현대인이 觀光을 중요시하게 하는 動機가 되었다.³¹⁾ 왜냐하면 관광은 현대인이 갖게된 餘暇에 대한 意識 構造의 變化와 生活意識의 변화추구, 그리고 鑑賞, 知識, 體驗, 活動, 休養, 精神의 鼓舞 등 생활의 變化를 추구하려는 인간의 基本的 欲求를 충족하기 위한 행위이며, 또한 이 행위중에서도 日常生活을 떠나서 미지의 自然이나 文化 등의 環境을 배경으로 移動과 慰樂欲求, 心身の 疲勞回復, 人間性回復의 수단으로서 바람직한 人間活動이기 때문이다.³²⁾

한편, 觀光은 國際 및 國內의 觀光往來가 활발해짐에 따라 國際收支의 改善, 물론 관광에 직접, 간접으로 관계하는 사업에 대한 投資의 促進이나 고용기회의 증대 등을 가져온다. 또한 他國의 風土, 文物을 알고 文化的 交流를 가져오므로써

31) 金震燮, 「現代觀光事業論」, 동화문화사, 1977, p.27. 참조.

32) 金相勳, 「觀光事業概論」, 형설출판사, 1982, p.32. 참조.

教育的, 文化的 効果 및 國際親善의 效果를 가져오기도 한다.³³⁾

이와같은 관광의 現代的 背景下에 觀光事業의 主要媒体로서 觀光從事員의 役割이 중요해졌다. 이는 觀光이 無形의 서비스를 開發함으로써 성립되는 사람에 의한 歡待事業이므로 관광서비스가 곧 觀光商品인 것이며 서비스 그 자체나 提供하는 從事員의 姿勢, 精神에 따라 그 質과 價値에 많은 차이를 나타내게 되기 때문이다.³⁴⁾ 觀光對象이나 諸盤施設이 아무리 훌륭해도 從事員의 행동여하에 따라 그 價値를 더 높일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이다.³⁵⁾ 다시말해서 觀光從事員은 관광관계 제일선에서 觀光客에게 서비스를 提供하는 者들이므로 관광객으로부터 信賴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은 물론 觀光客들에게 훌륭한 서비스를 提供하여 滿足感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觀光從事員으로서의 바람직한 職業觀

최근들어 需要의 急増 및 人力의 격감등과 함께 觀光地에 있어서의 서비스가 量的, 質的으로 低下되어 관광객에게 충분한 만족을 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오늘날 그 근본적인 改善이 널리 추구되어 가고 있다.³⁶⁾ 관광산업이 점차 發展해 감에 따라 종사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훌륭한 서비스맨으로서의 資質을 開發해나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직업관이 함양돼야 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觀光事業의 중요한 役割을 맡고 있는 從事員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姿勢가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1) 經濟的 側面

① 바람직한 報酬指向性

33) 金震燮, 前掲書, pp.198 ~ 206. 참조.

34) 동아대학교 새마을 연구소, "새마을 運動을 통한 釜山地域 觀光開發과 觀光客誘致方案," 새마을 운동 연구 논문집 간행위원회, 「새마을 운동 연구 논문집」 제 3 집(中), 1980, p.237. 참조.

35) 大林正二, 「觀光事業の話」, 日本經濟新聞社, 昭和 49 年, p.75. 참조.

36) 鈴木忠義編, 「現代觀光論」, 有斐閣雙書, 1974, p.162. 참조.

직업이란 生計維持를 위해 報酬를 얻는 것을 目的으로하는 계속적이며 일상적인 人間活動이다. 여기서 보수는 ‘物質的 報酬’와 ‘精神的 報償’을 의미하며 이 보수는 일한 만큼의 적정 댓가로서 주어질 때 가장 바람직하고 정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勤務時間이나 作業量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수가 많이 주어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근면, 성실한 態度로 임함으로써 그것에 알맞는 보수가 주어지기를 바래야 한다.

② 合理的 決斷性

사소한 利益으로인한 많은 離職이나 轉職을 하는 행위는 지양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觀光產業發展을 저해함은 물론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 하지 못함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앞의 職業一般이 지니는 倫理的 性格을 고찰하는 자리에서³⁷⁾ 살펴본 바와 같이 觀光從事員의 경우에도 個人的인 목전의 利益보다는 자기가 소속해 있는 職場은 물론 전체사회적인 안목에서 볼 때 보다 合理的 決斷에 의한 轉職이나 離職이 바람직할 것이다.³⁸⁾

(2) 社會的 側面

① 奉仕精神

觀光에 있어서 서비스(service)란 觀光客을 수용하기 위한 모든 活動을 말하는데, 制度的인 것과 非制度的인 것으로 分類할 수 있다. 制度的 서비스는 外國人 觀光客에 대한 出入國節次의 간편화, 관광객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 각종 施設의 改善 등이며 非制度的 서비스란 여러 차원에서의 對人서비스를 의미한다. 제아무

37) 本稿, p.8. 참조.

38) 전혀 轉職이나 離職이 허용되지 않는 폐쇄적 사회를 예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오히려 기존의 직업이 자기 적성에 알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면 빨리 직장을 옮기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우리는 자기 직업에서 經濟的인 報酬에 대한 滿足도 물론 고려해야 하겠지만, 직장에서 의미있는 많은 자기 시간을 할당하는 현대인의 일상적 생활을 감안하여 볼 때, 오히려 合理的 決斷에 의한 轉職 혹은 離職이 자신이나 사회전체를 위해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다.

리 제도적으로 잘 정비되어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움직이고 觀光客에게 直接的으로 접하는 것은 人間이기때문에 奉仕姿勢는 접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다.³⁹⁾

觀光接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精神이라 할 수 있다. 觀光從事員의 奉仕精神은接客업소의 생명인 동시에 無形의 商品인 것이다. 가령,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고객으로하여금 불평을 자아내게하거나 滿足感을 주지 못한다면接客업소가 가져야 할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객은 항상 정당하다”는 原則이 적용되는 서비스판매장에서 나라마다 風習이 다르고 사람마다 性格과 習慣이 다른 고객들을 만족하게 서비스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언제나 滿足스럽고 禮節바르고 正確性이 있으며 세련되고 迅速하게 서비스한다는 것은 가장 잘 훈련된 종업원으로서도 어려운 일이다.⁴⁰⁾

그러므로 從事員 각자는 자신이 국가를 代表하는 民間外交官으로서, 文化傳達者로서 社會에 寄與함을 염두에 두고 熱誠, 厚待, 禮儀, 誠實으로써 奉仕하려는 精神姿勢를 길러야 할 것이다. 특히 通譯案内員인 경우는 항상 外國人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소한 言行 하나 하나가 社會全体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② 責任感

자신에게 주어진 責任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 결과는 자신의 동료로부터 시작해서 넓게는 이 사회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觀光事業이 서비스를 主要商品으로하는 만큼 觀光從事員은 이런 責任意識없이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맡은 바 책임을 의식하여 항상 熱誠과 誠意를 갖고 고객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③ 社會成員으로서의 役割分擔

39) 金震燮, 「觀光學原論」, 일신사, 1977, p.267. 참조.

40) 金容元, 前掲書, p.96. 참조.

직업은 사람들이 그들이 형성한 社會에 무엇인가를 寄與하기 위한 活動이며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므로써 그 社會에 기여하고 공헌하게 된다는 것은 앞에서 수차 지적인 바이다. 자신이 提供하는 서비스가 이 社會를 위한 것이고, 그렇게함으로써 社會構成員으로서의 役割을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일에 대한 滿足感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④ 國家觀

觀光從事員은 國家의 權威와 利益을 損傷시키는 일이 없도록 有意하여야 한다. (觀光事業法 第3條)⁴¹⁾ 특히 外國人 觀光客인 경우에는 종사원 자신이 자칫, 자기의 態度 결정을 잘못함으로써 國家全體에 대한 印象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 고객에게 최대의 誠心을 다하여 奉仕하여야 함은 종사원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이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國家의 영속적인 發展을 위해 분담된 役割遂行을 위한 特定 職業人으로서의 倫理를 말하는 것이다. 즉 觀光從事員의 서비스는 국가 社會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므로 民族主体性을 상실하는 行爲 등을 유발해서는 안된다. 觀光客의 誤解로 인하여 우리 國家나 民族에 대한 그릇된 認識을 갖고 있다면, 觀光從事員으로서의 禮儀를 지키면서 觀光客의 오해를 풀어 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사원 자신이 확고한 國家觀을 갖고 있어야 한다.

(3) 個人的 側面

① 自負心과 矜持

觀光從事員은 관광이 가져다 주는 經濟的 效果(국제수지개선, 고용증대 등)와 非經濟的 效果(교육적, 문화적 효과, 국제친선효과, 국민보건 향상효과 등)의 중요성을 認知하여 자신이 우리나라 觀光產業 發展을 좌우할 수 있는 관광산업의 역군

41) 李允求, 前掲書, p.16. 참조.

本 研究에서는 외부의 강제에 의한 法規的 側面이 아니라 內面的 意識을 重點的으로 전개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 법규적 조항을 여기서 다루는 것은 本條를 위반하더라도 벌칙적용이 없는 일반적인 준수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라는 自負心과 矜持를 가져야 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 價値를 부여하며 애착을 가지고 근면,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로 나타나는 親節하고 禮儀바른 언어와 행동 하나 하나는 그대로 觀光客에게 전달 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② 自我實現

인간은 職業을 통해 자신의 個性을 발휘하고 自我實現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직업에 대한 滿足感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무조건 觀光從事業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아서 자아발현을 할 수 없는 직업이라는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⁴²⁾ 직업은 제 2의 天性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인간은 특정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게 되면 그 분야에 요구되는 屬性들이 몸에 배어 個性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인간은 일(work)을 통해서 自我를 發見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새롭게 형성해 나갈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항상 발전하여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 현재 생활의 풍족여부에 관계없이 職業活動을 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42) 이러한 측면은 「觀光從事員의 職業倫理」 항목의 “경제적 측면”에서 이미 언급된 合理的 決斷性에 근거를 둔 판단에 의하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의미와 상통한다. (本稿, p.14. 참조)

Ⅲ. 研究 方法

1. 測定道具

本 研究는 觀光從事員들의 職業觀에 대한 意識을 조사하려 하는 것이므로 理論的 背景을 중심으로 職業人이 갖는 세가지 精神活動側面을 고려하여 質問紙를 제작하였다. 각 質問 問項은 行動次元과 內容次元別로 제작하여 예비조사(pre-test)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表1>과 같이 총 26개로 구성했다.

각 영역에 있어서는 폐쇄적 질문형(closed question)과 Likert-type을 사용했다.

<表1> 測定道具의 問項構成表

행동차원 내용차원	認 知	情 意	行 動	計
경제적측면	2	3	2	7
사회적 //	3	5	5	13
개인적 //	2	2	2	6
계	7	10	9	26

2. 標 集

본 연구의 대상은 濟州道內 特級호텔인 4개 호텔과 道內에 本店을 갖고 있는 4개 旅行社를 중심으로 했다.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방법이 갖고 있는 短點인 각 문항에 대한 反應의 솔직성과 성의의 問題點을 감안하여 한 문항은 같은 문제(19-1번, 29번)를 사용하여 그 反應이 같지 않은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제외(총 42매)시켰다. 이에 따른 回收現況은 <표2>와 같다.

〈表2〉 질문지 회수현황

업종별	실시대상자수	회수	회수율(%)
호텔	A	49	54.4
	B	94	94
	C	65	72.2
	D	55	61.1
여행사	A	25	50
	B	16	53.3
	C	25	83.3
	D	23	76.7
계	510	304	59.6

3. 資料處理

資料分析은 컴퓨터처리에 의했다. 資料分析方法은 문항유형에 따라 폐쇄식 질문형은 반응구분에 대한 百分比(%)를 갖고 파악했고, Likert-type 질문형은 “확실히 그렇다”에 5점, “그런 것 같다”에 4점, “그저 그렇다”에 3점, “아닌것 같다”에 2점, “확실히 아니다”에 1점을 配點하여 平均(M)과 百分比(%)를 나타냈다. 背景變因間의 有意度 檢證은 카이자승검증(chi-square test, x^2 -test)을 사용했다. 또한 “그저 그렇다”는 반응은 대부분 否定的 反應으로 간주하여 분석했다.

IV. 結果 및 論議

본 章에서는 직업의 經濟的 側面, 社會的 側面, 個人的 側面으로 大別하여 직업에 대한 전체응답자의 반응경향을 고찰한다.

1. 經濟的 側面

職業의 經濟的 측면이란 物質的 報酬와 精神的 報酬를 의미하는데 이 보수에 대한 認識을 어떻게 갖고 있는냐에 따라 職業人으로서의 姿勢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物質的, 精神的 報酬에 대한 인식과 滿足여부, 그로인한 轉職經驗여부 등을 제시한다.

1) 物質的 報酬

보수의 形態에는 여러가지가 있겠는데 자신이 어떤 보수를 원하는가에 따라 일에 대한 만족여부도 달라질 것이다. 가령 자신이 일한 것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報酬만 많이 받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은 직업이 갖는 다른 意味와는 관계없이 항상 不滿足스런 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원하는 報酬의 形態는 어느 것입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勤務時間에 비례하고 일한 것에 대한 適正代價로서의 보수를 원하는 사람이 전체의 91.44%로 나타나고 있다.

報酬란 자신이 기여한 것에 대한 反對給付로써 주어지는 것일 때 정상적이고 떳떳한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이렇게 볼 때 일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고(0.65%), 作業量이나 勤務時間에 관계없이 많은 보수를 원하는 사람(1.97%)도 없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보수의 형태를 원하고 있다.

〈表3〉 원하는 보수형태

N	반응구분 (%)					계
	①	②	③	④	⑤	
304	71.053	20.395	5.921	1.974	0.658	100 (%)
	216	62	18	6	2	304 (N)

현재 자신에게 주어 지는 報酬는 “일한 만큼의 代價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4〉와 같은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肯定的 反應이 31.94 %, “그저 그런것 같다”(29.28%)와 否定的 反應(38.81%)이 68.09%로 나타나고 있어 (M=2.89) 전체적으로 현재 주어 지는 報酬에 대해서는 不滿足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背景變因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性別 (p < .05), 職業種別 (p < .05)에서 有意한 差異를 보이고 있는데 性別인 경우 男子 (M=2.66)가 女子 (M=3.08)보다, 職業種별로는 호텔종사원 (M=2.88)이 여행사종사원 (M=2.92)보다 각각 높게 否定的 傾向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31 ~ 35 세층 (M=2.60)이 20 ~ 25 세층보다 더 보수에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宗教別로는 기타종교집단 (M=2.33)이 가장 보수에 불만족하고 있다. 學歷別로 특이한 것은 4년제 정규대 졸업자집단이 (M=2.84) 전문대 졸업자 집단 (M=3.03)보다 보수에 대해서는 훨씬 더 不滿을 느끼고 있다.

종합해 보면, 觀光從事員이 전체적으로 현재 주어 지는 報酬에 대해서는 불만족

〈表4〉 現報酬에 대한 만족도

N	M	S.D	반응구분 (%)					計
			①	②	③	④	⑤	
304	2.895	1.148	8.55	23.36	29.28	26.64	12.17	100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M	S.D	x^2	반응구분 (%)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	45.39	2.66	1.21	17.0496	8.69	17.39	25.36	28.98	19.56
	여	54.60	3.08	1.04		8.43	28.31	32.53	24.69	6.02*
연령별	20~25	46.38	3.09	1.10	18.2830	10.63	26.95	31.91	22.69	7.08
	26~30	27.96	2.74	1.06		5.88	17.64	32.94	31.76	11.76
	31~35	13.15	2.60	1.22		5.00	22.50	25.00	22.50	25.00
	36 이상	12.50	2.78	1.25		10.52	23.68	15.78	34.21	15.78
종교별	기독교	28.94	2.89	1.26	18.3615	13.63	19.31	25.00	27.27	14.77
	불교	24.67	2.98	1.22		10.66	28.00	25.33	21.33	14.66
	기타종교	1.97	2.33	1.24		0.00	33.33	0.00	33.33	33.33
	무교	44.40	2.86	1.00		4.44	22.96	35.55	28.88	8.14
업종별	호텔	74.67	2.88	1.18	11.0325	8.37	25.11	28.19	23.34	14.97
	여행사	25.32	2.92	1.02		9.09	18.18	32.46	36.36	3.89*
학력별	고졸미만	7.56	2.78	1.31	11.6079	8.69	30.43	13.04	26.08	21.73
	고졸	57.56	2.84	1.15		7.99	23.42	26.85	28.57	13.14
	전문대졸	27.63	3.03	1.11		10.71	22.61	35.71	21.42	9.52
	4년제정규대학	6.25	2.84	0.93		5.26	15.78	42.10	31.57	5.26
	대학원	0.98	3.00	0.81		0.00	33.33	33.33	33.33	0.00

* $P < .05$

하고 있으며 그 경향은 특히 男子가 女子보다, 호텔종사원이 여행종사원 보다, 4년제 정규대 졸업자가 전문대 졸업자 보다 더 뚜렷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의 報酬가 生計維持를 하기에 충분한 지”에 대한 문항을 제시해 보았더니 <표 5>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생계유지를 하기에 충분하다는 應答率이 28.29%인데 반해 “그저 그런것 같다”(31.91%)와, 불충분하다(39.8%)에 대한 응답율은 71.81%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배경변인별로 보면 성별 ($p < .05$), 연령별 ($p < .05$), 학력별 ($p < .05$)에서는 매우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나 종교별, 업종별로는 別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性別로는 女子(M=3.09)가 男子(M=2.53)보다 더 肯定的 反應을 보이고 있고 연령별로는 20~25 세층이(M=3.14) 가장 높은 긍정율을 나타내는 반면 31~35 세층(M=2.37)은 낮은 긍정율을 나타내고 있다.

〈表5〉 현재의 보수와 생계유지

N	M	S.D	반응구분(%)					計
			①	②	③	④	⑤	
304	2.839	1.117	7.57	20.72	31.91	27.63	12.17	100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M	S.D	x ²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	45.39	2.53	1.01	20.9030	3.62	12.31	34.05	34.05	15.94
	여	54.60	3.09	1.13		10.84	27.71	30.12	22.28	9.03*
연령별	20~25	46.38	3.14	1.14	32.7187	12.05	29.07	28.36	21.98	8.51
	26~30	27.96	2.64	1.01		4.70	12.94	37.64	31.76	12.94
	31~35	13.15	2.37	0.82		0.00	5.00	45.00	32.50	17.50*
	36 이상	12.50	2.63	1.17		5.26	23.68	18.42	34.21	18.42
종교별	기독교	28.94	2.86	1.12	4.5489	7.95	21.59	31.81	26.13	12.50
	불교	24.67	2.81	1.11		8.00	17.33	36.00	25.33	13.33
	기타종교	1.97	3.33	0.94		16.66	16.66	50.00	16.66	0.00
	무교	44.40	2.81	1.11		6.66	22.22	28.88	30.37	11.85
업종별	호텔	74.67	2.81	1.09	3.0850	6.16	22.02	31.71	27.75	12.33
	여행사	25.32	2.89	1.16		11.68	16.88	32.46	27.27	11.68
학력별	고졸미만	7.56	2.30	1.19	29.4620	8.69	8.69	13.04	43.47	26.08
	고졸	57.56	2.82	1.14		7.42	21.71	30.28	26.85	13.71
	전문대졸	27.63	2.97	1.09		9.52	22.61	30.95	29.76	7.14*
	4년제정규대학	6.25	3.00	0.72		0.00	21.05	63.15	10.52	5.26
대학원	0.98	3.00	0.00	0.00	0.00	100.00	0.00	0.00		

* p < .05

業種別로는 旅行社從事員 (M=2.89)이 호텔종사원 (M=2.81)보다 긍정적 반응을 높게 보이고 있으며 學歷別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현재의 보수가 生計維持를 하기에 불충분 하다고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觀光從事員들이 현재의 報酬가 生計維持에 불충분하다고 應答하고 있으며 男子가 女子보다,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그 경향은 더 짙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報酬의 不滿足性때문에 轉職한 경험이 있는 지의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없다'가 70.06%로 매우 바람직한 경향을 나타냈다. 반면 1~2번이 26.31%, 3~4번이 2.96%, 5~6번이 0.65%를 나타내어 전체 有經驗者가 29.93%나 되고 있음은 주목할만하다.< 표 6 >

< 표 6 > 전직경험

N	반응구분(%)					計
	①	②	③	④	⑤	
304	70.066	26.316	2.961	0.658	0.000	100
	213	80	9	2	0	304 (N)

物質的 報酬에 대한 以上の 反應結果를 종합해 보면 현재 받고 있는 보수에 대해서는 상당한 不滿足을 표시하고 있지만 報酬가 자신이 寄與한 만큼의 代價로써 주어 지는 것이라는 보수에 대한 바람직한 認識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비록 현재는 轉職經驗率이 비교적 높은 비율인 29.93%나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많이 저하될 것으로 여겨진다.

2) 精神的 報酬

職業을 가짐으로써 人間은 물질적 보수는 물론 그에 못지않는 精神的 報酬를 받는다. 觀光從事員들은 이를 얼마나 認知하고 있는 지에 대한 문항을 제시해 본 결과 < 표 7 >과 같은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표 7〉 정신적 보수에 대한 인지도

N	M	S.D	반응구분(%)					計
			①	②	③	④	⑤	
304	3.148	1.303	16.45	31.58	14.80	24.67	12.50	100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M	S.D	x ²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	45.39	2.93	1.35	10.1288	13.76	28.26	14.49	24.63	18.84
	여	54.60	3.32	1.23		18.67	34.33	15.06	24.69	7.22*
연령별	20 ~ 25	46.38	3.34	1.25	20.9368	19.85	34.75	12.76	24.82	7.80
	26 ~ 30	27.96	2.82	1.32		11.76	24.70	17.64	25.88	20.00
	31 ~ 35	13.15	2.80	1.18		7.50	25.00	22.50	30.00	15.00
	36 이상	12.50	3.52	1.29		23.68	42.10	7.89	15.78	10.52
업종별	기독교	28.94	3.04	1.34	22.1009	13.63	35.22	10.22	23.86	17.04
	불교	24.67	3.14	1.15		12.00	32.00	21.33	28.00	6.66
	기타 불교	1.97	4.00	1.52		66.66	0.00	16.66	0.00	16.66*
	무교	44.40	3.17	1.32		18.51	30.37	14.07	24.44	12.59
업종별	호텔	74.67	3.01	1.31	11.0479	13.65	30.39	15.41	25.11	15.41
	여행사	25.32	3.53	1.20		24.67	35.06	12.98	23.37	3.89*
학력별	고졸미만	7.56	2.86	1.36	19.2453	4.34	47.82	4.34	17.39	26.08
	고졸	57.56	3.14	1.30		17.14	29.71	16.57	23.99	12.57
	전문대졸	27.63	3.30	1.22		17.85	34.52	15.47	25.00	7.14
	4년제정규대졸	6.25	3.00	1.41		21.05	21.05	10.52	31.57	15.78
	대학원	0.98	1.66	0.47		0.00	0.00	0.00	66.66	33.33

* P < .05

정신적 보수를 받는다는 肯定的 반응이 48.03%, '그저 그렇다' (14.80%)와 정신적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부정적 반응이 (37.17%) 51.97%로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性別 (p < .05), 宗教別 (p < .05), 업종별 (p < .05)로는 有意

한 差를 보이고 있으나 연령별, 학력별로는 유의차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性別에서는 女子(M=3.32)가 男子(M=2.93)보다 認知度가 높으며 業種別에서는 여행사종사원(M=3.53)이 호텔종사원(M=3.01)보다 높은 認知度를 보이고 있다.

宗教別에서는 기타종교(M=4.0)가 가장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반면 학력별로 유의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여기서는 별유의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精神的 報酬에 관심이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종합해 보면 직업을 가짐으로 해서 물질적 보수는 물론 정신적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肯定率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위신이나 존경같은 社會的 位置는 직업을 통해서 얻어 지는 것이므로 精神的 報酬를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의의를 느낄 수 있고 나아가 자신감이나 矜持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취시킬 수 있는 職業訓練이나 職業教育이 요망된다.

다음은 관광종사원 자신들에 대한 社會的 認識은 잘된 편인지에 대한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8>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잘된 편이라는 肯定的 反應은 21.71%, '그저 그렇다'(27.96%)와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50.33%)는 부정적 반응은 78.29%를 나타냄으로써 자신들에 대한 社會的 認識이 좋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를 배경변인별로 보면 有意한 差를 보이는 집단은 없다. 그러나 性別要因을 보았을 때 女子(M=2.76)가 男子(M=2.50)보다 이에 대해서는 약간 높은 肯定的 反應率을 보였고, 業種別로 旅行社從事員(M=2.75)과 호텔종사원(M=2.61)을 비교했을 때도 旅行社從事員이 약간 높은 긍정율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자신들에 대한 社會的 認識은 잘된 편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學歷別로는 4년제 정규대 졸업자가 否定的 反應을 가장 높게 보이고 있다.

이상의 반응경향 중 특히 觀光從事員들에 대한 社會的 認識은 잘 돼 있지 않다는 반응을 높게(78.29%) 보이고 있는데 이는 觀光從事員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표8〉 사회적 인식

N	M	S.D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計
304	2.648	1.090	6.58	15.13	27.96	37.17	13.16	100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M	S.D	x ²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	45.39	2.50	1.10	7.7565	5.07	15.21	23.18	38.40	18.11
	여	54.60	2.76	1.06		7.83	15.06	31.92	36.14	9.03
연령별	20 ~ 25	46.38	2.77	1.06	13.2349	7.09	17.73	29.07	37.58	8.51
	26 ~ 30	27.96	2.45	1.02		4.70	9.41	29.41	40.00	16.47
	31 ~ 35	13.15	2.45	1.18		5.00	17.50	20.00	32.50	25.00
	36 이상	12.50	2.81	1.14		10.52	15.78	28.94	34.21	10.52
종교별	기독교	28.94	2.52	1.04	10.6656	4.54	13.63	26.13	40.90	14.77
	불교	24.67	2.86	1.08		10.66	14.66	32.00	36.00	6.66
	기타종교	1.97	2.66	1.49		16.66	16.66	16.66	16.66	33.33
	무교	44.40	2.60	1.08		5.18	16.29	27.40	36.29	14.81
업종별	호텔	74.67	2.61	1.11	4.8626	6.60	15.41	25.99	36.56	15.41
	여행사	25.32	2.75	0.99		6.49	14.28	33.76	38.96	6.49
학력별	고졸미만	7.56	2.91	1.21	12.8604	8.69	30.43	17.39	30.43	13.04
	고졸	57.56	2.61	1.09		6.85	13.71	27.42	38.28	13.71
	전문대졸	27.63	2.67	1.02		4.76	15.47	34.52	33.33	11.90
	4년제정규대졸	6.25	2.47	1.14		10.52	5.26	21.05	47.36	15.78
	대학원	0.98	2.66	0.94		0.00	33.33	0.00	66.66	0.00

이 아직도 改善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觀光開發側面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觀光開發은 관광종사원 뿐만 아니라 地域住民 전체가 觀光要員이 될 때 비로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서비스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부족은 아마도 우리나라의 傳統的 직업관에서

유래한 職業差別意識에 기인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러한 그릇된 인식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觀光이 人間에의 必要성과 觀光산업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하는 對民弘報活動 強化가 요망됨은 물론 직업에 대한 天職意識이 고취돼야 할 것이다.

精神的 報酬의 態度側面을 파악해 보고자 정신적 보수때문에 離職한 經驗이 있는지에 관한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 9>와 같은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정신적 보수로 인한 離職經驗이 없다”라는 반응이 80.92%, 1번~4번이 19.07%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離職率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精神的 報酬에 대한 인지정도와 反比例함을 알 수 있다. 精神的 報酬에 대한 認知水準이 높을수록 離職率은 낮아지고 있다.

< 표 9 > 離職經驗

N	반 응 구 분 (%)					계
	①	②	③	④	⑤	
304	80.921	18.092	0.987	0.000	0.000	100 (%)
	246	55	3	0	0	304 (N)

2. 社會的 側面

職業은 각자의 生計를 維持하고 나아가서 共同社會를 위해 보답, 봉사, 기여, 공헌하는 活動이다. 이러한 의미의 職業은 자신에게 주어진 役割에 충실할 때 직업의 社會的 價値를 더 많이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觀光從事員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提供함으로써 이 사회에 봉사하게 되며 社會에 대한 이런 奉仕를 위해서는 강한 責任意識, 社會的인 役割分擔者로서의 意識, 확고한 國家觀 따위의 바른 精神的 姿勢를 길러야 할 것이다.

1) 責任意識

책임감의 중요성에 대한 관광종사원의 意識을 파악하고자 “직장에서 책임감은 왜 필요한가”라는 問題를 제시한 결과 <표 10>과 같은 反應을 나타냈다.

이 사회를 위해서 책임감이 必要하다는 反應이 전체의 84.21%,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동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 10.52%를 나타냈고 ‘상사로 부터 신용을 잃기 때문’이 2.30%로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責任意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책임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

N	반 응 구 분 (%)					계
	①	②	③	④	⑤	
304	84.211	10.526	2.961	0.000	2.303	100 (%)
	256	32	9	0	7	304 (N)

다음은 觀光從事員이라는 특정 專門職業人으로서의 責任感에 대한 意識을 파악하려는 문항을 제시했더니 <표 11>과 같은 反應결과를 나타냈다.

관광종사원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責任意識이 강해야 한다는 反應이 전체의 83.2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그저 그렇다”는 미온적인 反應(5.59%)과 責任感이 강한 사람만이 관광종사원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데 대한 否定的反應도(11.18%) 16.77%나 차지하고 있다.

背景變因別로는 별 유의차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 경향은 다음과 같다.

性別, 業種別로는 모두 높은 긍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연령별로는 26~30세 층이 (M=4.09) 비교적 낮은 긍정율을, 36세이상 층이 (M=4.52) 비교적 높은 긍정율을 보이고 있다.

宗教別에서는 아무 종교도 갖지 않은 집단 (M=4.17)이, 學歷別로는 4년제 정규대 졸업자 (M=4.10)가 종사원으로서의 責任意識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반응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관광종사원으로서의 責任意識은 매우 높은 平均分布 (M=4.25)를 보이고 있음으로써 책임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1〉 觀光從事員으로서의 책임의식

N	M	S.D	반응구분(%)					계
			①	②	③	④	⑤	
304	4.250	1.081	56.25	26.97	5.59	7.89	3.29	100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M	S.D	x^2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	45.39	4.24	1.07	0.4837	55.79	27.53	5.07	8.69	2.89
	여	54.60	4.25	1.08		56.62	26.50	6.02	7.22	3.61
연령별	20 ~ 25	46.38	4.30	1.05	8.4352	58.86	25.53	6.38	5.67	3.54
	26 ~ 30	27.96	4.09	1.17		50.58	28.23	4.70	12.94	3.52
	31 ~ 35	13.15	4.12	1.18		52.50	27.50	5.00	10.00	5.00
	36 이상	12.50	4.52	0.71		63.15	28.94	5.26	2.63	0.00
종교별	기독교	28.94	4.26	1.16	8.5780	61.36	21.59	3.40	9.09	4.54
	불교	24.67	4.36	1.00		61.33	24.00	6.66	5.33	2.66
	기타종교	1.97	4.33	1.10		66.66	16.66	0.00	16.66	0.00
	무교	44.40	4.17	1.06		49.62	32.59	6.66	8.14	2.96
업종별	호텔	74.67	4.25	1.10	4.7490	58.14	25.55	4.40	7.92	3.96
	여행사	25.32	4.22	0.98		50.64	31.16	9.09	7.79	1.29
학력별	고졸미만	7.56	4.39	1.13	11.1665	65.21	26.08	0.00	0.00	8.69
	고졸	57.56	4.19	1.08		53.14	27.99	6.85	9.14	2.85
	전문대졸	27.63	4.34	1.02		61.90	22.61	5.95	7.14	2.38
	4년제정규대졸	6.25	4.10	1.16		47.36	36.84	0.00	10.52	5.26
	대학원	0.98	4.66	0.47		66.66	33.33	0.00	0.00	0.00

責任感의 態度側面에 관한 문항을 제시했더니 〈표 12〉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감을 의식하여 최대의 친절과 예의를 갖춘다”가 전체의 88.16%, “그저 그렇다”(9.21%)와, “아니다”(2.63%)는 否定的 反應이 11.84

〈표 12〉 責任感에 대한 態度面

N	M	S.D	반응구분(%)					계
			①	②	③	④	⑤	
304	4.391	0.787	54.28	33.88	9.21	1.97	0.66	100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M	S.D	x ²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성 별	남	45.39	4.33	0.79	2.7718	49.27	38.40	9.42	2.17	0.72
	여	54.60	4.43	0.77		58.43	30.12	9.03	1.80	0.60
연 령 별	20 ~ 25	46.38	4.41	0.78	6.5707	55.31	34.04	7.80	2.12	0.70
	26 ~ 30	27.96	4.30	0.82		48.23	38.82	9.41	2.35	1.17
	31 ~ 35	13.15	4.32	0.81		52.50	30.00	15.00	2.50	0.00
	36 이상	12.50	4.57	0.63		65.78	26.31	7.89	0.00	0.00
종 교 별	기 독 교	28.94	4.48	0.70	16.4615	59.09	32.95	5.68	2.27	0.00
	불 교	24.67	4.49	0.82		65.33	22.66	9.33	1.33	1.33
	기 타 종 교	1.97	4.16	0.89		50.00	16.66	33.33	0.00	0.00
	무 교	44.40	4.28	0.79		45.18	41.48	10.37	2.22	0.74
호 텔 여 행 사	호 텔	74.67	4.37	0.80	5.4982	52.86	35.68	7.92	2.64	0.88
	여 행 사	25.32	4.45	0.71		58.44	28.57	12.98	0.00	0.00
학 력 별	고 졸 미 만	7.56	4.43	0.82	16.1385	60.86	26.08	8.69	4.34	0.00
	고 졸	57.56	4.40	0.80		55.42	34.28	6.85	2.28	1.14
	전 문 대 졸	27.63	4.39	0.67		50.00	39.28	10.71	0.00	0.00
	4년제정규대졸	6.25	4.15	0.98		52.63	15.78	26.31	5.26	0.00
	대 학 원	0.98	4.66	0.47		66.66	33.33	0.00	0.00	0.00

%를 차지하고 있다.

背景變因別로 유의한 차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 경향을 보면, 性別로는 女子(M=4.43)가 男子(M=4.33) 보다 약간 높은 肯定率을 보이고 있다. 業種別로는 여행사종사원(M=4.45)이 호텔종사원(M=4.37) 보다 약간 높은 肯定率을 보이

고 있다. “책임감을 의식하여 최대의 친절과 예의를 갖추는가”에 대한 연령별 반응경향은 36 세 이상 층이 (M=4.57) 가장 높은 긍정율을 보이고 있고 宗教別로는 기독교 (M=4.48)와 불교 (M=4.49)가 비교적 높은 긍정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責任意識에 대한 反應結果를 종합해 보면 觀光從事員들이 責任感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고 이런 기본의식은 최대의 親節과 禮儀를 갖추므로써 실행에 옮겨 지고 있다.

자신에게 부여된 役割에 대해서는 責任을 질 줄 아는 態度는 현 사회속에서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 요소인 만큼 위에서 보여 준 觀光從事員들의 높은 책임감은 올바른 職業觀의 확립은 물론 觀光産業發展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役割分擔에 대한 參與意識

人間은 職業을 통해서 자신이 이 사회에서 필요로하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자기의 存在價値를 갖게 된다. 따라서 자신들이 提供하는 서비스가 사회성원으로서의 役割分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意識과 現職選擇動機를 동시에 알아 보기 위한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 13>과 같은 반응을 나타냈다.

<표 13> 社會貢獻에 대한 意識 및 選職動機

N	반응 구분 (%)					계
	①	②	③	④	⑤	
304	29.934	20.724	1.645	16.776	30.921	100 (%)
	91	63	5	51	94	304(N)

“보다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 사회에 보답, 봉사, 기여하기 위해서 現職을 택했다”는 종사원은 29.93 %,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라고 選職動機를 밝히는 종사원은 20.72 %로 나타났다.

한편 “수입이 좋아서”가 1.64%, “다른 직업을 못 구해서”가 16.77%, “기타”가 30.9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職業選擇 당시에는 社會에의 寄與나 보답, 奉仕에 대한 意識은 責任意識에 비해 매우 결여돼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수입이나 기타 조건이 보다 좋은 직업이 있으면 離職할 것이라는 潛在的 離職率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자신이 제공하는 서어비스가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표 14>와 같이 응답했다.

이에 대한 肯定的 反應은 89.23%나 되는데 반해 否定的 反應은 불과 9.83%에 지나지 않아 매우 바람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반응결과로 보아 選職 동기와는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背景變因別로 봤을 때는 별 有意差를 갖고 있지 않으나 一般的 分布傾向을 보면 다음과 같다.

性別(男子 M=4.51, 女子 M=4.44), 業種別(호텔종사원 M=4.49, 여행사종사원 M=4.42)로는 모두 높은 平均點數를 보이고 있다. 宗教別에서는 기독교인(M=4.52)과 불교인(M=4.54)이 높은 肯定率을 보이고 있고, 기타종교인(M=4.00)과 無教徒(M=4.42)가 비교적 낮은 肯定率을 보이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36세 이상 층이(M=4.76) 매우 높은 肯定率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먹고 살기에 충분한 재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자기직업을 통해 사회에 보답, 봉사, 기여할 수 있다면 계속 現職에 종사하겠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는 <표 15>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는 肯定的 反應이 64.15%, “그저 그렇다”(12.50%)와 “아니다”(23.35%)는 반응이 35.85%로 사회적 役割에 대한 責任意識의 態度側面에서는 비교적 저조한 肯定率을 보이고 있다.

背景變因別로는 性別, 職業種別에서는 각각 비슷한 平均을 보이고 있으나 宗教別로는 기타종교(M=2.83)가 매우 낮은 肯定率을 나타내고 있다. 學歷別에서는 4년제 정규대 졸업자가(M=3.15) 비교적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별에서는 36세 이상 층이(M=4.10) 높은 肯定率을 보이고 있다.

〈표 14〉 사회성원으로서의 역할수행 의식

N	M	S.D	반응구분(%)					계
			①	②	③	④	⑤	
304	4.477	0.734	59.87	30.26	7.57	2.30	0.00	100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M	S.D	x ²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	45.39	4.51	0.72	1.0988	63.04	27.53	7.24	2.17	0.00
	여	54.60	4.44	0.74		57.22	32.53	7.83	2.40	0.00
연령별	20~25	46.38	4.41	0.76	8.4706	55.31	33.33	8.51	2.83	0.00
	26~30	27.96	4.45	0.72		57.64	32.94	7.05	2.35	0.00
	31~35	13.15	4.47	0.77		62.50	25.00	10.00	2.50	0.00
	36 이상	12.50	4.76	0.48		78.94	18.42	2.63	0.00	0.00
종교별	기독교	28.94	4.52	0.75	14.0199	65.90	22.72	9.09	2.27	0.00
	불교	24.67	4.54	0.69		65.33	25.33	8.00	1.33	0.00
	기타종교	1.97	4.00	1.00		33.33	50.00	0.00	16.66	0.00
	무교	44.40	4.42	0.71		54.07	37.03	6.66	2.22	0.00
업종별	호텔	74.67	4.49	0.73	1.9518	61.67	28.19	7.92	2.20	0.00
	여행사	25.32	4.42	0.72		54.54	36.36	6.49	2.59	0.00
학력별	고졸미만	7.56	4.43	0.77	8.5963	60.86	21.73	17.39	0.00	0.00
	고졸	57.56	4.49	0.73		61.14	29.71	6.28	2.85	0.00
	전문대졸	27.63	4.44	0.74		57.14	32.14	8.33	2.38	0.00
	4년제정규대졸	6.25	4.47	0.59		52.63	42.10	5.26	0.00	0.00
	대학원	0.98	5.00	0.00		100.00	0.00	0.00	0.00	0.00

이상의 社會的 役割에 관한 반응을 종합해 보면 관광서비스업에 종사함으로써 보다 良質의 서비스를 提供하는 것이 이 社會의 發展에 寄與하고 奉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적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그들의 選職動機나 장래의 현

〈 표 15 〉 社會的 役割分擔意識에 대한 態度側面

N	M	S.D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304	3.803	1.389	48.03	16.12	12.50	14.80	8.55	100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M	S.D	x ²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	45.39	3.79	1.38	2.0625	46.37	18.84	12.31	13.04	9.42
	여	54.60	3.80	1.39		49.39	13.85	12.65	16.26	7.83
연령별	20 ~ 25	46.38	3.88	1.29	15.2184	48.93	15.60	15.60	14.89	4.96
	26 ~ 30	27.96	3.68	1.51		48.23	14.11	8.23	16.47	12.94
	31 ~ 35	13.15	3.47	1.37		32.50	22.50	15.00	20.00	10.00
	36 이상	12.50	4.10	1.35		60.52	15.78	7.89	5.26	10.52
종교별	기독교	28.94	3.97	1.35	12.5480	55.68	14.77	7.95	14.77	6.81
	불교	24.67	3.92	1.31		49.33	18.66	14.66	9.33	8.00
	기타종교	1.97	2.83	1.67		33.33	0.00	16.66	16.66	33.33
	무교	44.40	3.66	1.40		42.96	16.29	14.07	17.77	8.88
업종별	호텔	74.67	3.77	1.42	5.8574	48.01	15.85	12.33	13.21	10.57
	여행사	25.32	3.88	1.26		48.05	16.88	12.98	19.48	2.59
학력별	고졸미만	7.56	4.00	1.31	17.3811	56.52	8.69	21.73	4.34	8.69
	고졸	57.56	3.80	1.39		49.14	14.85	11.42	16.57	7.99
	전문대졸	27.63	3.86	1.34		48.80	17.85	11.90	14.28	7.14
	4년제정규대졸	6.25	3.15	1.49		26.31	21.05	15.78	15.78	21.05
	대학원	0.98	4.33	0.47		33.33	66.66	0.00	0.00	0.00

직 종사 여부에 대해서는 소극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潛在的 離職率에 대한 問題性을 示唆해 주고 있다.

3) 國家觀

“觀光事業은 국가간의 交流를 증대시키고 相互理解를 촉진함으로써 국제친선을 圖謀하고 나아가 세계평화를 이룩하는데 크게 공헌하게 되어 「세계평화에의 旅券」이라 불리우는”⁴³⁾ 만큼 觀光從事員들의 뚜렷한 國家觀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어느 개인의 국가관이란 그 국가를 구성하는 個個成員의 盛衰와 국가전체의 興亡을 동일시하는 意識 즉, 나와 국가가 하나라는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國家意識이 강하다는 것은 한 개인과 국가와의 同一體意識이 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하며 그것은 곧 국가의 目標과 개인의 價値觀이 同一하게 받아 들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國家觀은 외부로부터 강요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國民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本研究에서는 개인이 국가에 대해 지니고 있는 自負心이 어느 정도인가하는 문제와 國家像徵物에 대한 個個人의 의식정도를 파악하려 했다.

“우리가 자랑스런 국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의 문항에 대한 반응결과는 <표 16>과 같다.

“자랑스런 국토를 가지고 있다”는 肯定的反應이 전체의 69.74%, “그저 그렇다”(18.75%), “아니다”(14.47%)가 33.22%로 否定的反應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背景變因別로 有意한 差를 보이는 변인은 없으나 일반적 경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性別로는 여자가(M=4.09), 남자(M=3.90)보다 높은 긍정율을 보이며, 業種別로는 호텔종사원이(M=4.07) 여행사종사원(M=3.79)보다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宗教別로는 기타종교(M=3.50)가 가장 낮은 긍정율을 보이며 연령별로는 26~30세층(M=3.89)과 31~35세층(M=3.87)이 각각 비교적 낮은 긍정율을 나타내고 있다. 學歷別로는 4년제 정규대 졸업자(M=3.52)가 대체

43) 徐庚林, 觀光法規論, 제주대학 관광개발연구소, 1975, p.9.

〈표 16〉 국토에 대한 자부심

N	M	S.D	반응구분(%)					계
			①	②	③	④	⑤	
304	4.007	1.235	50.99	18.75	15.79	8.88	5.59	100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M	S.D	χ^2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	45.39	3.90	1.26	3.7120	46.37	20.28	18.11	7.97	7.24
	여	54.60	4.09	1.20		54.81	17.46	13.85	9.63	4.21
연령별	20 ~ 25	46.38	4.08	1.18	11.8397	53.90	17.73	15.60	8.51	4.25
	26 ~ 30	27.96	3.89	1.29		49.41	14.11	18.82	11.76	5.88
	31 ~ 35	13.15	3.87	1.18		37.50	32.50	17.50	5.00	7.50
	36 이상	12.50	4.10	1.29		57.89	18.42	7.89	7.89	7.89
종교별	기독교	28.94	4.00	1.25	15.4406	50.00	21.59	13.63	7.95	6.81
	불교	24.67	4.29	1.08		64.00	13.33	12.00	9.33	1.33
	기타종교	1.97	3.50	1.25		33.33	16.66	16.66	33.33	0.00
	무교	44.40	3.87	1.27		45.18	20.00	19.25	8.14	7.40
업종별	호텔	74.67	4.07	1.18	5.0586	52.86	19.82	14.09	8.81	4.40
	여행사	25.32	3.79	1.34		45.45	15.58	20.77	9.09	9.09
학력별	고졸미만	7.56	4.00	1.50	19.8244	60.86	13.04	8.69	0.00	17.39
	고졸	57.56	3.98	1.19		48.57	19.42	18.85	8.57	4.57
	전문대졸	27.63	4.16	1.16		57.14	19.04	10.71	9.52	3.57
	4년제정규대졸	6.25	3.52	1.39		36.84	15.78	21.05	15.78	10.52
대학원	0.98	3.66	1.24		33.33	33.33	0.00	33.33	0.00	

로 낮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문화와 전통에 대한矜持를 알아 보기 위해서 그에 관한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 17〉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 17〉 文化와 傳統에 대한 矜持

N	M	S.D	반응구분(%)					계
			①	②	③	④	⑤	
304	4.247	0.950	51.64	28.62	14.14	3.95	1.64	100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M	S.D	x ²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	45.39	4.23	1.00	2.3294	53.62	24.63	15.21	4.34	2.17
	여	54.60	4.25	0.90		50.00	31.92	13.25	3.61	1.20
연령별	20~25	46.38	4.26	0.91	3.3826	51.77	29.07	14.89	2.83	1.41
	26~30	27.96	4.15	1.02		48.23	29.41	14.11	5.88	2.35
	31~35	13.15	4.30	0.95		55.00	27.50	12.50	2.50	2.50
	36 이상	12.50	4.31	0.89		55.26	26.31	13.15	5.26	0.00
종교별	기독교	28.94	4.35	0.95	17.0563	56.81	30.68	6.81	2.27	3.40
	불교	24.67	4.38	0.87		61.33	20.00	14.66	4.00	0.00
	기타종교	1.97	4.00	0.81		33.33	33.33	33.33	0.00	0.00
	무교	44.40	4.11	0.97		43.70	31.85	17.77	5.18	1.48
업종별	호텔	74.67	4.28	0.95	4.1864	54.62	25.99	14.09	3.52	1.76
	여행사	25.32	4.14	0.93		42.85	36.36	14.28	5.19	1.29
학력별	고졸미만	7.56	4.47	1.13	31.2446	73.91	17.39	0.00	0.00	8.69
	고졸	57.56	4.28	0.84		51.42	28.57	17.14	2.85	0.00
	진문대졸	27.63	4.20	1.00		50.00	30.95	10.71	5.95	2.38*
	4년제정규대졸	6.25	3.89	1.11		36.84	31.57	21.05	5.26	5.26
	대학원	0.98	3.66	1.24		33.33	33.33	0.00	33.33	0.00

* P < .05

“우리나라 文化와 傳統에 대해 긍지를 가진다”는 肯定的 反應이 80.26%, “그저 그렇다”(14.14%)와 否定的 反應(5.59%)이 19.73%로 나타나고 있다.

背景變因別로는 學歷別에서 有意差 ($p < .05$)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低學歷 소지자일수록 肯定的 反應率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性別로는 男 ($M=4.23$), 女 ($M=4.25$) 모두 높은 긍정율을 보이고 있고 業種別로는 호텔종사원 ($M=4.28$)이 여행사종사원 ($M=4.14$) 보다 약간 높게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26 ~ 30 세 층 ($M=4.15$)이, 宗教別로는 기타종교 ($M=4.00$)가 비교적 낮은 긍정율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민국 國民으로서의 개개인이 지닌 국가에 대한 自負心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 18>과 같은 반응율을 보이고 있다.

“자랑스럽다”는 肯定的 反應率이 80.60%, “그저 그렇다” 14.47%, “자랑스럽지 못하다”는 否定的 反應이 4.94%로 나타남으로써 대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은 대단한 편이라고 생각된다.

背景變因別에서는 學歷別 ($p < .05$)에서 유의한 差를 보이고 있는데 高卒未滿의 학력소지자 ($M=4.52$)가 가장 높은 肯定率을 보이고 있다.

男·女別에서는 서로 비슷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나 業種別로는 호텔종사원이 ($M=4.40$), 여행사종사원 ($M=4.23$) 보다 약간 높은 긍정율을 보여 주고 있다.

宗教別로는 불교인이 ($M=4.46$), 연령별로는 20 ~ 25 세 층이 ($M=4.41$) 각각 높게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自負心에 대한 態度的 측면을 파악하려는 문항으로 “가령 외국인 관광객 (혹은 내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다면, 觀光客의 기분을 상하게 할 염려가 있더라도 오해를 푸는데 최선을 다하겠는 지”에 대해서는 <표 19>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否定的 反應은 7.54%에 불과한데 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肯定的 反應을 92.77%나 보여줌으로써 觀光從事員들 개개인이 국가에 대해 갖는 自負心은 대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8〉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自負心

N	M	S.D	반 공 구 분(%)					계
			①	②	③	④	⑤	
304	4.359	0.925	60.86	19.74	14.47	4.28	0.66	100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M	S.D	x ²	반 응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	45.39	4.34	0.93	0.9788	60.14	21.01	13.04	5.07	0.72
	여	54.60	4.36	0.91		61.44	18.67	15.66	3.61	0.60
연령별	20 ~ 25	46.38	4.41	0.85	6.4906	61.70	21.27	13.47	3.54	0.00
	26 ~ 30	27.96	4.37	0.94		63.52	16.47	15.29	3.52	1.17
	31 ~ 35	13.15	4.22	1.03		55.00	22.50	15.00	5.00	2.50
	36 이상	12.50	4.26	0.99		57.89	18.42	15.78	7.89	0.00
종교별	기독교	28.94	4.34	0.94	7.2782	60.22	19.31	15.90	3.40	1.13
	불교	24.67	4.46	0.88		68.00	16.00	10.66	5.33	0.00
	기타종교	1.97	3.83	1.06		33.33	33.33	16.66	16.66	0.00
	무교	44.40	4.33	0.91		58.51	21.48	15.55	3.70	0.74
업종별	호텔	74.67	4.40	0.92	5.5825	63.87	18.50	12.33	4.40	0.88
	여행사	25.32	4.23	0.91		51.94	23.37	20.77	3.89	0.00
학력별	고졸미만	7.56	4.52	0.97	27.2887	73.91	13.04	8.69	0.00	4.34
	고졸	57.56	4.37	0.87		59.99	21.71	14.28	3.99	0.00
	전문대졸	27.63	4.40	0.88		64.28	15.47	16.66	3.57	0.00*
	4년제정규대졸	6.25	3.89	1.20		42.10	26.31	15.78	10.52	5.26
	대학원	0.98	3.66	1.24		33.33	33.33	0.00	33.33	0.00

* P < .05

背景變因別 일반적 경향을 보면 性別로는 여자가 (M=4.62) 남자 (M=4.57) 보다, 業種別로는 호텔종사원 (M=4.62)이 여행사종사원 (M=4.53)보다 각각 약간 높은 긍정율을 보이고 있다. 宗教別로는 기독교 (M=4.70), 불교 (M=4.70)가 똑

〈표 19〉 자부심에 대한 態度面

N	M	S.D	반응구분(%)					계
			①	②	③	④	⑤	
304	4.602	0.685	69.41	23.36	5.59	1.32	0.33	100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M	S.D	x ²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	45.39	4.57	0.73	1.2708	68.84	23.18	5.79	1.44	0.72
	여	54.60	4.62	0.64		69.87	23.49	5.42	1.20	0.00
연령별	20 ~ 25	46.38	4.63	0.61	7.3876	20.21	24.11	4.96	0.70	0.00
	26 ~ 30	27.96	4.51	0.79		64.70	27.05	4.70	2.35	1.17
	31 ~ 35	13.15	4.60	0.73		72.50	17.50	7.50	2.50	0.00
	36 이상	12.50	4.65	0.61		73.68	18.42	7.89	0.00	0.00
종교별	기독교	28.94	4.70	0.65	21.0168	79.54	13.63	4.54	2.27	0.00
	불교	24.67	4.70	0.56		74.66	22.66	1.33	1.33	0.00
	기타종교	1.97	5.00	0.00		100.00	0.00	0.00	0.00	0.00
	무교	44.40	4.45	0.74		58.51	31.11	8.88	0.74	0.74
업종별	호텔	74.67	4.62	0.66	2.3763	70.92	22.46	5.28	0.88	0.44
	여행사	25.32	4.53	0.73		64.93	25.97	6.49	2.59	0.00
학력별	고졸미만	7.56	4.39	0.82	24.4460	56.52	30.43	8.69	4.34	0.00
	고졸	57.56	4.60	0.64		67.99	25.71	5.14	1.14	0.00
	전문대졸	27.63	4.70	0.57		76.19	17.85	5.95	0.00	0.00*
	4년제정규대졸	6.25	4.36	1.13		68.42	15.78	2.26	5.26	5.26
대학원	0.98	4.66	0.47		66.66	33.33	0.00	0.00	0.00	

* P < .05

같은 반응을 보였다. 學歷別로는 전문대 졸업자(M=4.70)가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國家像徵物에 대한 반응으로 “무궁화를 보면 우리 민족성이 담긴 國花라는 점에서 경건한 생각이 드는지”에 대한 肯定的反應이 79.94%, “그저 그렇다”(15.13%), “그렇지 않다”가 4.94%로 각각 나타났다. <표 20>

<표 20> 무궁화에 대한 의식

N	M	S.D	반응구분(%)					계
			①	②	③	④	⑤	
304	4.280	0.938	54.28	25.66	15.13	3.62	1.32	100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M	S.D	x ²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	45.39	4.22	0.91	5.2343	49.27	28.98	18.11	2.17	1.44
	여	54.60	4.32	0.95		58.43	22.89	12.65	4.81	1.20
연령별	20 ~ 25	46.38	4.41	0.85	12.0374	60.28	24.82	11.34	2.83	0.70
	26 ~ 30	27.96	4.11	1.04		48.23	25.88	17.64	5.88	2.35
	31 ~ 35	13.15	4.17	0.97		50.00	22.50	25.00	0.00	2.50
	36 이상	12.50	4.26	0.87		50.00	31.57	13.15	5.26	0.00
종교별	기독교	28.94	4.35	0.89	22.2964	57.95	23.86	14.77	2.27	1.13
	불교	24.67	4.49	0.75		64.00	22.66	12.00	1.33	0.00
	기타종교	1.97	3.33	1.24		16.66	33.33	33.33	0.00	16.66*
	무교	44.40	4.15	0.99		48.14	28.14	16.29	5.92	1.48
업종별	호텔	74.67	4.30	0.93	9.7291	56.38	23.34	16.29	2.20	1.76
	여행사	25.32	4.20	0.93		48.05	32.46	11.68	7.79	0.00
학력별	고졸미만	7.56	4.30	0.99	30.1798	56.52	26.08	13.04	0.00	4.34
	고졸	57.56	4.36	0.86		57.71	24.57	14.28	2.85	0.57
	전문대졸	27.63	4.28	0.90		53.57	27.38	13.09	5.95	0.00*
	4년제정규대졸	6.25	3.57	1.22		26.31	31.57	26.31	5.26	10.52
	대학원	0.98	3.66	0.94		33.33	0.00	66.66	0.00	0.00

* P < .05

背景變因別로는 學歷別 ($p < .05$)에서 有意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4년제 정규 대졸업자가 비교적 낮은 긍정율 ($M=3.57$)을 보이는 반면 고등학교 졸업자는 가장 높은 긍정율 ($M=4.36$)을 보여 주고 있다. 性別에서는 여자가 ($M=4.32$), 남자 ($M=4.22$)보다, 業種別로는 호텔종사원이 ($M=4.30$) 여행사종사원 ($M=4.20$)보다 각각 높은 긍정율을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宗教別에서도 $p < .05$ 로 有意한 差를 보여 주고 있는데 불교인 ($M=4.49$)이 가장 높은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는 반면 기타종교인 ($M=3.33$)은 비교적 낮은 긍정율을 보여 주고 있다.

愛國歌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표 21>과 같은 반응을 보여 주고 있다.

즉, 愛國歌가 연주되면 엄숙한 마음이 드는 지에 대해서 “그렇다”는 반응을 한 응답자가 91.12%, “그저 그렇다” (4.93%), “아니다” (3.94%)라는 否定的 反應은 불과 8.87%에 지나지 않고 있다.

背景變因別에 따른 일반적 경향을 보면 性別 차이는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業種別에서는 호텔종사원이 ($M=4.59$) 여행사종사원 ($M=4.38$)보다 비교적 높은 긍정율을 보여 주고 있다. 연령별에서도 전체적으로 높은 平均을 보이고 있으나 특히 36세 이상인 경우 $M=4.78$ 로 상당한 支持를 보여 주고 있다. 學歷別에서는 고졸자 ($M=4.58$)와 전문대 졸업자 ($M=4.54$)가 특히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宗教別에서는 기독교인 ($M=4.61$), 불교인 ($M=4.66$)에 비해 기타종교인 ($M=4.00$)은 약간 낮은 반응을 보여 주고 있다.

태극기에 대한 觀光從事員들의 마음가짐을 파악해 보려는 의도에서 “태극기가 계양되는 것을 보았을 때 걸음이 멈추어 지는 지”의 문항을 제시했던 바, <표 22>에서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렇다”는 肯定的 反應을 보인 응답자가 81.58%, “그저 그렇다” 10.86%, “아니다” 6.56%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背景變因別로는 宗教別 ($p < .05$), 學歷別 ($p < .05$)에서 有意한 差異를 보여 주고 있는데 불교인 ($M=4.46$)이 높은 긍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학력별에서는 고졸 소지자가 비교적 높은 긍정적 반응 ($M=4.30$)을 보이고 있다. 性別에서는 별 차이를

〈표 21〉 애국가에 대한 의식

N	M	S.D	반응구분(%)					계
			①	②	③	④	⑤	
304	4.546	0.826	69.08	22.04	4.93	2.30	1.64	100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M	S.D	x ²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	45.39	4.55	0.75	5.0938	67.39	23.18	7.24	1.44	0.72
	여	54.60	4.54	0.88		70.48	21.08	3.01	3.01	2.40
연령별	20 ~ 25	46.38	4.51	0.84	7.9804	66.66	24.82	4.25	2.12	2.12
	26 ~ 30	27.96	4.52	0.84		69.41	20.00	5.88	3.52	1.17
	31 ~ 35	13.15	4.45	0.89		62.50	27.50	5.00	2.50	2.50
	36 이상	12.50	4.78	0.52		84.21	10.52	5.26	0.00	0.00
종교별	기독교	28.94	4.61	0.78	20.3842	75.00	15.90	5.68	2.27	1.13
	불교	24.67	4.66	0.67		74.66	20.00	4.00	0.00	1.33
	기타종교	1.97	4.00	1.52		66.66	0.00	16.66	0.00	16.66
	무교	44.40	4.45	0.85		62.22	28.14	4.44	3.70	1.48
업종별	호텔	74.67	4.59	0.72	7.4054	70.48	22.02	5.28	1.32	0.88
	여행사	25.32	4.38	1.04		64.93	22.07	3.89	5.19	3.89
학력별	고졸미만	7.56	4.47	1.01	15.4746	73.91	8.69	13.04	0.00	4.34
	고졸	57.56	4.58	0.79		70.85	21.71	3.99	1.71	1.71
	전문대졸	27.63	4.54	0.74		66.66	25.00	4.76	3.57	0.00
	4년제정규대졸	6.23	4.31	1.12		63.15	21.05	5.26	5.26	5.26
	대학원	0.98	4.33	0.47		33.33	66.66	0.00	0.00	0.00

보이지 않고 있으며 業種別로는 호텔종사원이 (M=4.27) 여행사종사원 (M=4.09) 보다 더 긍정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별에서는 36세 이상 층이 (M= 4.39) 가장 높은 肯定的 反應을 나타내 주고 있다.

< 표 22 > 태극기에 대한 마음가짐

N	M	S.D	반응구분(%)					계
			①	②	③	④	⑤	
304	4.227	0.972	50.33	31.25	10.86	5.92	1.64	100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M	S.D	x ²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	45.39	4.23	0.90	5.3617	46.37	37.68	10.14	4.34	1.44
	여	54.60	4.22	1.02		53.61	25.90	11.44	7.22	1.80
연령별	20 ~ 25	46.38	4.29	0.95	10.8135	55.31	26.24	12.05	4.96	1.41
	26 ~ 30	27.96	4.17	0.94		44.70	37.64	9.41	7.05	1.17
	31 ~ 35	13.15	3.95	1.16		40.00	35.00	10.00	10.00	5.00
	36 이상	12.50	4.39	0.77		55.26	31.57	10.52	2.63	0.00
종교별	기독교	28.94	4.21	0.98	21.7471	48.86	34.09	9.09	5.68	2.27
	불교	24.67	4.46	0.83		64.00	22.66	10.66	1.33	1.33*
	기타종교	1.97	3.33	1.49		33.33	16.66	16.66	16.66	16.66
	무교	44.40	4.14	0.96		44.44	34.81	11.85	8.14	0.74
업종별	호텔	74.67	4.27	0.93	5.6953	51.10	33.03	9.69	4.40	1.76
	여행사	25.32	4.09	1.07		48.05	25.97	14.28	10.38	1.29
학력별	고졸미만	7.56	4.17	1.20	30.6851	56.52	21.73	13.04	0.00	8.69
	고졸	57.56	4.30	0.87		51.99	31.99	10.28	5.71	0.00
	전문대졸	27.63	4.22	0.98		51.19	29.76	10.71	7.14	1.19*
	4년제정규대졸	6.25	3.73	1.24		31.57	36.84	15.78	5.26	10.52
대학원	0.98	3.33	0.94		0.00	66.66	0.00	33.33	0.00	

* p < .05

이상에서 살펴 본 결과 觀光從事員들은 國家像徵物에 대한 의식 가운데서 애국가나 태극기에 대한 적극적 반응에 비해 무궁화에 대한 의식은 약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부심 측면에서는 높은 긍정율을 나타내고 있다.

職業의 社會的 側面에 대한 觀光종사원들의 반응을 綜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잠재적 離職可能性을 내포하고는 있으나 자신이 提供하는 서비스가 이 社會發展을 위한 것이라는 의식과 함께 자신에게 주어진 役割에 責任을 다하고 올바른 國家觀을 견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觀光從事員으로서 온 국민이 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의 사회실현에 일익을 담당하는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겨진다.

3. 個人的 側面

일반적으로 직업에 대한 滿足感은 우리 개인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의 個性을 충분히 발휘하고, 그리고 그것이 동시에 社會發展에 寄與한다고 느낄 때 우리나라는 자연스러운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從事員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사실은 자기의 適性과 能力에 알맞는,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을 선택하여 정성과 열의를 쏟는 自己實現의 過程을 통해 행복해 질 수 있다는 사고를 지니는 것이다. 以下에서는 현재의 자기 직업이 자신의 自我實現을 위해 적합한지의 여부와 현직 종사자로서의 矜持 및 滿足度에 관해 파악해 본다.

1) 自我實現 側面

직업활동에 있어서의 個人的 才能, 資質, 個性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職業選擇 第1條件을 고르게 했더니 <표 23>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재능, 자질, 개성에 적합하고 일에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을 선택의 제 1조건으로 택한 應答者는 전체의 89.14%로 支配的인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표 23> 職業選擇의 條件

N	반응구분(%)					계
	①	②	③	④	⑤	
304	44.079	45.066	6.250	1.974	2.632	100 (%)
	134	137	19	6	8	304 (N)

그리고 職場雰圍氣를 중시하는 응답자도 6.25%나 나타나고 있어 職場雰圍氣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현재의 직업이 자신의 自我實現을 위해 적당한 지의 여부에 대한 문항을 제시하여 滿足度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肯定的 反應이 50.00%, ‘그저 그렇다’가 26.64%, ‘적당치 못하다’는 否定的 反應이 26.36%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背景變因別로 보면 學歷別에서 $p < .05$ 로 有意한 差異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4년제 정규대 졸업자가 $M=2.52$ 로서 가장 높은 否定的 反應을 보이고 있다. 性別, 業種別로는 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宗教別로는 기타종교인 ($M=3.16$)이 기독교인 ($M=3.54$)이나 불교인 ($M=3.60$)보다, 연령별로는 31~35 세층($M=3.22$)이 다른 연령층보다 각각 비교적 낮은 긍정율을 보이고 있다.〈표 24〉

이상을 綜合해 보면, 職業에 있어서 才能이나 資質, 適性の 適合性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신의 現職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肯定率을 보임으로써 現職業이 자신의 自我實現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직업이라고는 보지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체로 高學歷 소지자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2) 矜持

이어서 觀光從事員으로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矜持面을 파악해 보고자, “자신이 우리나라 전략산업중의 하나인 觀光産業의 역군이라는 사실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 25〉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긍지를 갖고 있다”는 肯定的 反應이 50.65%, “그저 그렇다” 29.61%, “아니다” 19.74%로 각각 나타내어 비교적 낮은 肯定率을 보임으로써 觀光從事員로서의 자기 직업에 대한 矜持度는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背景變因別로 일반적 分布性向을 보면 男子 ($M=3.47$)가 女子 ($M=3.53$)보다, 호텔종사원 ($M=3.46$)이 여행사종사원 ($M=3.63$)보다 조금 낮은 긍정율을 나타

< 표 24 > 현직업에서의 자아실현 만족도

N	M	S.D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304	3.457	1.229	25.99	24.01	26.64	16.45	6.91	100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M	S.D	x ²	변인구분(%)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	45.39	3.46	1.21	0.4141	26.08	23.18	28.26	15.94	6.52
	여	54.60	3.45	1.23		25.90	24.69	25.30	16.86	7.22
연령별	20 ~ 25	46.38	3.48	1.22	12.1690	26.95	22.69	29.07	14.18	7.09
	26 ~ 30	27.96	3.32	1.21		20.00	28.23	23.52	21.17	7.05
	31 ~ 35	13.15	3.22	1.21		20.00	20.00	30.00	22.50	7.50
	36 이상	12.50	3.89	1.18		42.10	23.68	21.05	7.89	5.26
종교별	기독교	28.94	3.54	1.28	13.7444	30.68	26.13	17.04	19.31	6.81
	불교	24.67	3.60	1.17		32.00	17.33	33.33	13.33	4.00
	기타종교	1.97	3.16	1.34		16.66	33.33	16.66	16.66	16.66
	무교	44.40	3.33	1.19		20.00	25.92	29.62	16.29	8.14
업종별	호텔	74.67	3.46	1.25	4.1792	27.31	22.46	27.31	14.97	7.92
	여행사	25.32	3.44	1.15		22.07	28.57	24.67	20.77	3.89
학력별	고졸미만	7.56	3.60	1.27	30.2967	30.43	26.08	30.43	0.00	13.04
	고졸	57.56	3.50	1.19		26.28	25.71	26.28	15.99	5.71
	전문대졸	27.63	3.52	1.16		27.38	22.61	28.57	17.85	3.57*
	4년제정규대졸	6.25	2.52	1.39		15.78	10.52	10.52	36.84	26.31
	대학원	0.98	3.33	0.47		0.00	33.33	66.66	0.00	0.00

*p < .05

내고 있다. 연령별로는 31 ~ 35 세 층이 (M=3.30) 비교적 낮은 肯定的 反應을 보이고 있고 學歷別로는 4년제 정규대 졸업자가 낮은 긍정율 (M=2.94)을 보이고 있다. 學歷別에서 가장 높은 긍정율을 보이는 계층은 고졸미만의 학력소지자들

〈표 25〉 관광종사원으로서의 矜持

N	M	S.D	반응구분(%)					계
			①	②	③	④	⑤	
304	3.510	1.200	26.64	24.01	29.61	13.16	6.58	100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M	S.D	χ^2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	45.39	3.47	1.23	2.1075	27.53	21.01	31.15	12.31	7.97
	여	54.60	3.53	1.17		25.90	26.50	28.31	13.85	5.42
연교별	20 ~ 25	46.38	3.56	1.16	14.9186	26.24	27.65	27.65	12.76	5.67
	26 ~ 30	27.96	3.36	1.20		22.35	22.35	32.94	14.11	8.23
	31 ~ 35	13.15	3.30	1.18		17.50	27.50	32.50	12.50	10.00
	36 이상	12.50	3.86	1.21		47.36	10.52	26.31	13.15	2.63
종교별	기독교	28.94	3.53	1.25	17.8317	27.27	29.54	20.45	14.77	7.95
	불교	24.67	3.68	1.15		36.00	13.33	36.00	12.00	2.66
	기타종교	1.97	3.66	1.37		33.33	33.33	16.66	0.00	16.66
	무교	44.40	3.39	1.16		20.74	25.92	32.59	13.33	7.40
업종별	호텔	74.67	3.46	1.24	5.1314	26.87	22.90	28.63	13.21	8.37
	여행사	25.32	3.63	1.04		25.97	27.27	32.46	12.98	1.29
학력별	고졸미만	7.56	3.78	1.31	19.1669	39.13	26.08	21.73	0.00	13.04
	고졸	57.56	3.51	1.21		27.42	23.99	27.99	13.71	6.85
	전문대졸	27.63	3.57	1.04		23.80	26.19	35.71	11.90	2.38
	4년제정규대졸	6.25	2.94	1.35		21.05	10.52	26.31	26.31	15.78
	대학원	0.98	3.00	0.81		0.00	33.33	33.33	33.33	0.00

이다.

「일」에 대한 矜持와 職業活動에 관한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 26〉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矜持를 지녀야 직업에 滿足을 느낄 수 있고 친절하고 예

의바른 서비스 맨이 될 수 있다는 反應率은 66.45 %를 보이는 반면 일에 대한 矜持가 없어도 직업에 滿足을 느낄 수 있고 훌륭한 서비스 맨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33.55 %를 차지하고 있다.

觀光從事員으로서의 矜持에 대한 반응을 綜合하면, 일에 대한 긍지가 있어야 직업에도 滿足할 수 있다고 여기고는 있으나 실제로 관광산업역군으로서의 긍지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26〉 긍지에 대한 인식

N	반응구분(%)					계
	①	②	③	④	⑤	
304	34.539	31.908	21.711	8.224	3.618	100(%)
	105	97	66	25	11	304(N)

V. 結論 : 要約 및 提言

本研究의 目的은 濟州道 觀光從事員들의 職業에 대한 意識性向을 조사하고, 그들이 지녀야 할 올바른 職業倫理意識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濟州道 觀光開發을 위한 基礎資料를 提供하려는 데 있었다.

측정도구는 폐쇄식과 Likert-type 을 병행하여 內容次元과 行動次元別로 26문항의 설문을 작성했다. 수집된 자료는 컴퓨터처리 결과에 의한 平均(M), 百分比(%), Chi-square 검증을 통해 分析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신이 社會에 기여한 것에 대한 적정 댓가로서의 바람직한 報酬形態를 원하는 비율이 지배적이었다. 현재의 보수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족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이로 인한 轉職經驗率도 29.93%나 되고 있다. 또한 자신들에 대한 社會的 認識이 낮다고 하는 반응을 비교적 높게 보임으로써 자신들의 社會的 位置가 불안정함을 나타내었다.

2. 職業에 대한 責任意識이나 社會성원으로서의 役割分擔意識(參與意識)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選職動機나 앞으로의 계속적인 現職從事여부에 대해서는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점은 44.26%의 (選職動機面: 18.41%, 장래 態度面: 25.85%) 잠재적 離職率에 대한 관찰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3. 자신의 現職業이 자신의 재능과 적성에 알맞고 自我實現을 하기에 적절한 직업인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肯定率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高學歷所持者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기 직업에 대한 自負心이나 矜持度에서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상의 研究結果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몇가지 提言을 덧붙이고자 한다.

1. 觀光從事員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절이나 어학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교육에 병행하여, 직업에 대한 召命意識과 올바른 職業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專門的인 職業教育이 요청된다.

2. 일반인에 대한 職業教育을 강화하여 觀光產業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職業差別意識 등 고루한 직업관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觀光從事員들이 충분한 精神的報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당국의 배려도 필요하다.

3. 企業倫理와 職業倫理는 상호보완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경영주의 적절한 대우(정당한 보수, 재해에 대비한 안전조치, 직업환경조건의 개선 등)가 뒤따라야만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몇가지 기본적인 提言들이 현실적으로 충족될 때, 企業에 대한 不滿이나 離職率은 점차 감소될 것이다. 그리고 觀光從事員들은 矜持와 自負心을 갖고 社會성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役割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濟州道 觀光產業은 보다 더 활기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리라 예상된다.

參 考 文 獻

○ 단행본

- 金相勳. 「觀光事業概論」, 서울: 형설출판사, 1982.
- 金泳謨. 李孝善·崔京錫·元奭朝共著. 「現代社會學」.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1983.
- 金震燮. 「觀光事業論」. 서울: 동화문화사, 1977.
. 「觀光學原論」. 서울: 일신사, 1977.
- 로버트. 그린 (Robert W. Green). 이동하 역.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서울:
종로서적, 1981.
- 문화공보부. 「직업윤리」. 서울: 고려서적(주), 1983.
- 徐庚林, 「觀光法規論」. 제주대 학관광개발연구소, 1975.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 1 권 제 3 호, 1979.
- 세계평화교수협의회편. 「한국인의 가치관」. 서울:一念, 1982.
- 李亢求, 「觀光法規特講」. 서울: 종각출판사, 1979.
- 哲學教材研究會編. 「哲學概論」. 서울: 학문사, 1981.
- P. 프루키에. 金哲洙 역. 「公民의 倫理」上·下. 서울: 삼성미술문화재단, 1980.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現代社會와 倫理」. 연구총서 82-4, 1982.
「哲學思想의 諸問題(1)」. 연구총서 83-10, 1983.
- 현대사회연구소. 「2000年代를 향한 韓國人像」, 1982.
- 大林正二. 「現代事業の話」. 동경: 日經文庫, 1974.
- 鈴木忠義編. 「現代觀光論」. 동경: 有斐閣双書, 1974.

○ 論 文

- 김동일.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가치관,” 「향후 10년의 국가 발전 전략 경향신문사 창간 37주년 심포지움」. 경향신문사, 1984.
- 金容元. “第3次 産業으로서의 서비스産業,” 「경기대학논문집」. 제 5 집, 1977.
- 金彩潤.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職業觀念에 대한 假說的 探索,”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논문집」. 제 18 집, 1971.
- 金恒元. “職場倫理,” 「관광종사원 연수교재」. 농민교육원, 1982.
- 계명대학교새마을연구소. “慶州地域의 觀光開發과 觀光客誘致方案摸索,” 「새마을운동연구논문집」. 제 3 권(中), 1980.
- 동아대학교새마을연구소. “새마을運動을 통한 釜山地域觀光開發과 觀光客誘致方案,” 「새마을운동연구논문집」. 제 3 집(中), 1980.
- 朴鍾恒. “한국관광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경기대학논문집」. 제 5 집, 1977.
- 박혜경. 우리나라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 연구논문집. 연구 81-5. 사회정화위원회, 1981.
- 李榮基. “經濟學的 觀點에서 본 國民倫理學,” 「國民倫理研究(NEWSLETTER)」. No. 6. 國民倫理學會, 1980.
- 임종철. “勤勞階層의 倫理意識과 勞使關係,” 「産業社會의 職業倫理」.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1.
- 전경태. “현대산업사회의 직업윤리,” 「계명 15집」. 계명대학교, 1982.
- 全海宗. “韓國傳統社會의 職業倫理,” 「産業社會의 職業倫理」. 1981.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1.
- 한병길. “農村地域學生의 職業觀에 대한 연구(전북지역중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질 문 지

안녕 하십니까?

이 질문지는 직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본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이 대답하는 내용은 모두 숫자로 통계 처리되므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각 문항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느낌을 해당란에 V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오 영 속

◇ 해당란에 V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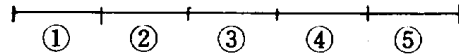
1. 응답자의 성별 ① 남 ② 여
2. 응답자의 연령
 ① 20 ~ 25 세 ② 26 ~ 30 세 ③ 31 ~ 35 세 ④ 36 세 이상
3. 응답자의 종교
 ① 기독교(천주교 포함) ② 불교 ③ 기타종교 ④ 종교없음
4. 응답자의 업종 ① 호 텔 ② 여행사
5. 응답자의 교육정도
 ① 고졸미만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4년제 정규대졸
 ⑤ 대 학 원
6. 당신이 원하는 보수의 형태는 어느것입니까?
 ① 일한것에 대한 적정 댓가로서의 보수
 ② 근무시간에 비례하는 보수

- ③ 일정한 보수외에 보너스가 많은 보수
 ④ 작업량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많은 보수
 ⑤ 일을 하지 않아도 받을수 있는 보수
7. 보수때문에 전직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1~2번 ③ 3~4번 ④ 5~6번 ⑤ 7번이상
8. 직장에서 책임감은 왜 필요합니까?
 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다해내는 것이 자신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② 책임을 다해야만 동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③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안한것 보다 좋기 때문이다.
 ④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보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⑤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상사로부터 신용을 잃기 때문이다.
9. 존경이나 위신같은 정신적 보수때문에 이직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1~2번 ③ 3~4번 ④ 5~6번 ⑤ 7번이상
10. 당신은 왜 현직업을 택하셨습니까?
 ① 보다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에 보답, 봉사 기여하기 위해서
 ② 자신의 적성상이 직업을 통해서만 자아실현을 할수 있으므로
 ③ 수입이 좋아서
 ④ 다른 직업을 못구해서
 ⑤ 기 타
11. 당신은 다음에서 어느것을 직업선택의 제 1조건으로 삼으시겠습니까?
 ① 재능, 자질, 개성에 적합한 직업
 ② 일에 보람을 가질수 있는 직업
 ③ 직장 분위기가 좋은 직업
 ④ 적성이나 보람과는 관계없이 보수가 많은 직업
 ⑤ 사회적으로 인기있는 직업
12. 다음에서 당신의 생각과 일치되는 문항에 V표해 주십시오.
 ① 일에 대한 긍지가 있어야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서비스맨(혹은 안내원)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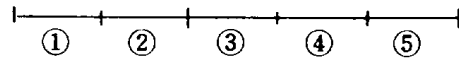
- () ② 일에 대한 금지가 있어야 직업에 만족을 느낄수 있다.
- () ③ 일에 대한 금지가 없어도 직업에 만족을 느낄수 있다.
- () ④ 일에 대한 금지가 없어도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서비스맨 (혹은 안내원)이 될 수 있다.
- () ⑤ 일에 대한 금지와 직장생활과는 무관한 것이다.

13. 나의 보수는 일한만큼의 댓가로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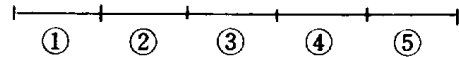
확실히 그렇것 그 저 아닌것 확실히 그렇지 않 다 그렇다 같 다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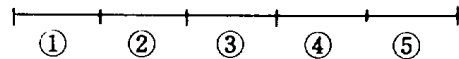
14. 나의 보수는 생계유지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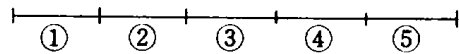
15. 나는 직업을 가짐으로 해서 물질적 보수는 물론 존경이나 위신같은 정신적 보수를 받는다고 생각해 본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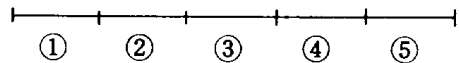
16. 관광종사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잘된 편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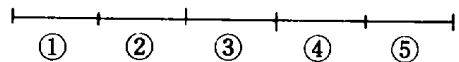
17.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수행할줄 아는 사람만이 관광종사원으로서 성공할수 있는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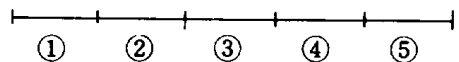
18. 나는 고객에게 서비스 (혹은 안내)할때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감을 의식하여 최대의 친절과 예의를 갖추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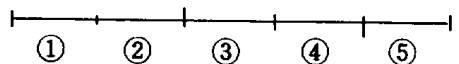
19. 나는 보다 훌륭한 서비스(안내)를 제공하는 것이 곧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19-1. 나는 무조건 보수가 많은 직업보다 나의 적성에 맞고 일에 보람을 가질수 있는 직업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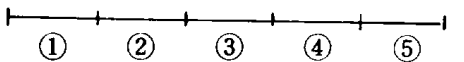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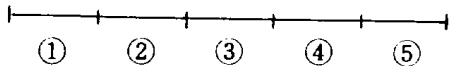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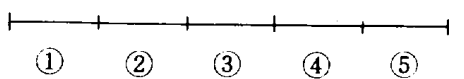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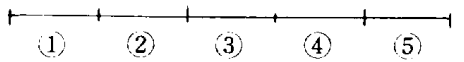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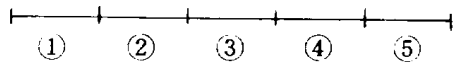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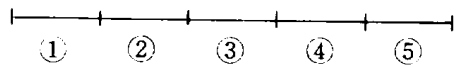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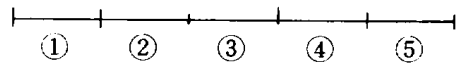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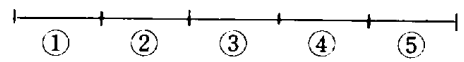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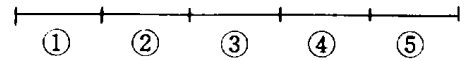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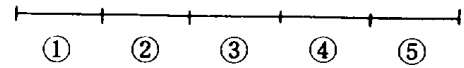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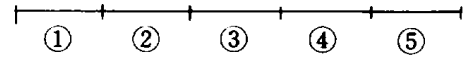


20. 나는 먹고 살기에 충분한 재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현직업을 통해 사회에 보답, 봉사, 기여할 수 있다면 계속 현 직업에 종사하겠다.



확실히 그렇다 같 다 그렇지 않 다 아니
 확실히 그렇다 같 다 그렇지 않 다 아니

21. 나는 우리나라가 자랑스런 국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22. 나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 긍지를 가진다.
23.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24. 나는 외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다면 관광객의 기분을 상하게 할 염려가 있더라도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설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5. 나는 무궁화를 보면 우리 민족성이 담긴 국화라는 점에서 경건한 생각이 든다.
26. 나는 애국가가 연주되면 엄숙한 마음이 든다.
27. 나는 태극기 게양하는 것을 가까이서 보았을때 걸음이 멈추어 진다.
28. 나의 직업은 나의 자아실현을 위해 적당한 직업이라 생각한다.
29. 만약 나에게 직업선택 기회가 주어진다 면 사회적 인기나 보수가 좋은 직업보다 자신의 적성에 맞고 자아를 실현시킬수 있는 직업을 택하겠다.
30. 나는 현 직업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
31. 나는 내가 우리나라 외화획득을 위한 주요 산업중의 하나인 관광산업의 역군이라는 긍지를 갖고 있다.



◆ 수고하셨습니다. ◆

(Abstract)

A Study on Vocational Consciousness of Cheju Tourism Employees

Oh Young-sook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ang-won

This paper reveals the attitude of Cheju tourist employees for their vocation and then to manipulate to figure out correct vocational ethics, which result in making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efficient Cheju tourism.

The writer set up twenty-six part questionnaire in parallel with closed question and Likert type. Collected datas were analyzed with arithmetical mean(M), percentage(%), and chi-square test. Here are the results:

1. It is a dominant tendency that the employees want to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e work done for society. They show dissatisfaction with their present salary and this, in most cases, makes them change professional occupations the rate of 29.93% turnover shows. Moreover, they response to their social status so deprecatingly that we can note their unstable position.

2. They don't want to avoid responsibility for their job and recognize their role as a member of society. The motivation to continue their jobs is not positive so that the potential seperation rate is 44.26%.

3. When they are asked if their ability fits their current vocation and if the vocation allows them to realize themselves, they hardly ever reply positively: this attitude can be observed in inverse proportion to their education.

To improve their vocational attitude in a sound manner, we propose the following:

* A these submitted to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May, 1984.

1. There needs to be vocational education to elevate their professionalism, expected vocational consciousness.

2. It is desirable for the authorities to improve the social evaluation for the tourist industry to recuperate their consciousness.

3. There should be appropriate repayment for employees such as safety consideration against calamity, proper pay, improvement in working conditions, and others.

When the proposal has come true in the near future, we will notice reduction in the separation rate and dissatisfaction, in other words, their pride and self-confidence to perform their work faithfully. Without a doubt the Cheju tourist industry will improve with a well-formed system.